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영일보

“최고” GREENWAY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세금 보고
703-961-8811

대표전화 :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8996호

Thursday, April 18, 2024 A



김진표 의장이 16일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750만 해외동포들을 한국 국민으로”

김진표 국회의장 및 국회방문단
워싱턴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

워싱턴을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저출산 및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750만 해외동포들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을 적극 검토해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포괄적 동맹이 구체화 되고 있으며, 말 아닌 행동하는 동맹 기반이 마련됐다”고 한미관계를 평가하며 “차기 연

대 김 의원의 연방 상원 진출이 가시화된 가운데, 현재 연방의회에 4명의 한인 의원을 입성시킨 미주 동포사회의 발전과 역량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장과 함께 워싱턴 방문한 국회의원 방문단(정진석·주호영·주경호·최형두·안규백·윤호중·한정애·송갑석·소병철 의원) 역시 “미주 동포들을 위한 정책에 힘 쓰겠다”며 “워싱턴 동포들이 한미동맹의 든든한 기반, 굳건한 한미동맹의 가교로서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소병철 의원(더민주)은 본보에

보도된 복수국적 문제에 대한 기사(‘회사 합격 한인, 국적 이탈에 발목’ 00일 A4면 보도)를 거론하며 “미주 동포들의 관심이 국적이탈 문제의 폐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법무부에 직접 연락해 국적이탈 문제 해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6일 워싱턴DC소재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는 조현동 주미대사 이하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워싱턴 한인 단체인, 국제 동포 인사 100여명이 초청됐다.

박세용 기자

‘표류하는 대통령실’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 보도
용산 “검토된 바 없다” 부인했지만

대통령실이 표류하고 있다. 4·10 총선 참패 다음 날인 1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및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후속 인선이 발표되지 못한 채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차기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무수한 하마평만 새어나오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

후선에 기름을 부은 건 17일 오전 TV조선과 YTN이 보도한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유력 검토설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박영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른바 ‘3철’(양정철·이호철·전해철)로 불리며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힌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요직에 기용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정치권은 하루 종일 뒤숭숭했다.

일단 대통령실은 공식 부인했다. 해당 보도가 나오고 약 3시간 뒤 대변인실 명의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상당수 수

석도 “전혀 아는 바 없다” “황당한 이야기”라는 반응이었다. 특히 야당 책사로 불리는 양 전 원장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했다.

하지만 해당 보도에 대해 일부 참모진은 “윤 대통령이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공식 입장과 180도 다른 이야기를 전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파격적인 방안일 수 있다”며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에게 정부장관직을 신설해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정 참모가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을 언론에 일부러 흘렸다는 얘기도 나왔다.

박 전 의원과 양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과 부부 모임을 가진 만큼 친밀한 사이라고 한다. 박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을 지내며 검사였던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4월 미국 국민방문 당시 윤 대통령의 하버드대 강연에 참석했다. 양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을 문 전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으로 추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박태인 기자
▶ 2면 ‘윤정부 인사’ 로 이어집니다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정조준, 관세 3배로 인상 검토

불공정무역 주장, 관세 7.5%→25%
대선 앞두고 노동자 표심잡기 분석

조 바이든 대통령이 17일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근로자들이 중국과의 불공정한 경쟁으로 피해를



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집권하면 중국산 제품에 최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도 11월 대선 을 앞두고 ‘중국 때리기’로 표심 연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AFP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이 중

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지적하며 관세 인상 조치를 고려할 것을 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평균 관세는 현재 7.5%다. 바이든이 이날 직접 권고한 세율은 25%에 이른다.

관세 인상 명분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다. 백악관은 “미국 근로자들이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수입

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며 “보조금과 (보호주의) 정책을 통한 중국산 저가 대체재 때문에 고품질의 미국 제품 (경쟁력)이 인위적으로 약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바이든의 지시가 USTR의 대(對)중국 무역법 301조 적용 검토 결과에 맞춰 이뤄졌다고 밝혔다.

USTR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역법 301조를 이용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조치를 갱신할지를 검토해왔다. ‘슈퍼 301조’로 통하는 무역

법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행위 또는 특정 수입품목으로 인해 미국 내 산업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권한으로 무역 보복을 허용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우회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조사도 지시했다. 중국 등에서 제조한 철강이 멕시코를 통해 면세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관세 회피가 이뤄진다는 우려에서다.

이승호 기자
▶ 2면 ‘관세 인상’ 으로 이어집니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용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입
순금 여기 팔리지 않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식당	Beer & Wine	창고	
식당 자리 6,408 SF, 엘버나 메릴랜드	주2만불 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MD,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	발티모아 부근 창고 임대 구하시는 분 5000-8000	
식당 자리 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	주1만8천불 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VA 조건부 임대계약, 35만불	창고자리 임대 전기시설 완벽, 9000 SF, VA 현든	
식당 자리 7,100 SF, 단층파라 단독 건물 임대 와잇마쉬 메릴랜드	도장	그로서리	
식당 자리 5500 SF, 임대, VA 페어팩스카운티	태권도장 자리 2700 SF, 임대, 버지니아 폴스처치	스페니쉬 그로서리 자리 5,484 SF, 폴스처치, 버지니아	
식당 자리 4500 SF, 임대, 차이나타운부근	태권도장 자리 2900 SF, 임대, 버지니아 에쉬번	상가	
식당 자리 7800 SF, 임대, 버지니아 에쉬번	사무실	단독 건물 백클린, 단독건물, 4백5만불, 6,000 SF	
식당자리, 제과점, 건물 매매 0.5 에이커, 3500 SF 매매가 5백만불, 버지니아 맥클린	에난데일 사무실 1200 SF 사무실, 병원 적합, 35만불	상가 매매 VA 비엔나, 연 순수의 52만불, 8백만불	
버블티 가게 1년 70만불 매출, 렌트 6천불 순수의 한달 1만6천, AP 36만불	사무실 자리 임대 고급, 타이슨스코너 엘리리아 바로 옆 최고급 컨퍼런스룸, 경비원24시간, 8300 SF.	발티모아 상업건물 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 아파트	
	사무실 자리 임대 워싱턴 디씨, 교통좋은 곳 사무실 임대하실 회사 찾습니다	주택	
		콘도 방2, 화2, 차고1, 메트로근처 웨그맨 옆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	

주 택 투자 컨설팅 주재원 렌딩 서비스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사 업 체 공장 / 사무실 / 창고 설립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ONE REALTYONE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수자

총리·비서실장 인선 놓고 연일 난맥상...용산에선 무슨 일이?

▶1면 '윤정부 인사'에서 이어집니다

언론 보도 뒤 양 전 원장은 주변에 "될 더 할 생각이 없다. 무리한 보도 같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중앙일보에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당선인은 이날 김여준 유튜브에 출연해 "이분들(박영선·양정철)이 윤 대통령과 친한 것은 사실"이라며 "찔러보기, 띄워보기이자 간보기다. 언론에 흘려 보면 1차 검증이 된다"고 했다.

추미애 민주당 당선인도 SBS 라디오에서 "박근혜 정부가 탄핵 직전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씨를 총리 지명한 것과 유사한 느낌"이라고 했다. 반면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IMF를 극복하려 보수 진영에 있던 분을 비서실장으로 모셔왔다. 무난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이 단순한 띄워보기가 아니라 현재 윤석열 정부가 처한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총선 참패로 위기에 봉착한 엄중한 시기의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과 같은 해프닝은 (대통령실) 메시지 관리의 부실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실제 사의를 표명한 수석급 참모진의 국정 관여 빈도는 대폭 줄어든 상태다. 정책을 담당하는 '늘공(직업 공무원)' 참모진은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업무를 수행 중이지만, 정부 기능을 담당하는 '어공(외부 출신 공무원)' 참모진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되거나 빠지는 경우가 늘었다고 한다. "그러나-하지만"이 15번 등장하며 기존 국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16일 국무회의 총선 입장문도 극소수 참모만 배석한 채 준비가 이뤄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박영선·양정철 기용설도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데, 일부 참모는 언론플레이를 하거나 아예 맞다고 하니 이것 자체가 비정상 아닌가"라며 "공식선상과 다른 얘기가 자꾸 흘러

나오니 비선 라인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최근 윤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관저 정치'라는 말까지 나온다.

여권 관계자들은 총선 참패를 수습하기 위해서도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총리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야당이 각종 특검 카드를 꺼내 드는 상황에서 전열을 서둘러 재정비하기 위한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서실장과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지 일주일가량 됐지만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석·권영

세·장제원 의원, 이정현 전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하마평만 무성한 상태다. 특히 총리의 경우 거대 야당의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박영선 전 의원도 배제할 수 없는 카드"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앉히고 싶은 인물과 당과 여론이 요구하는 인사가 다른 점이 윤 대통령의 고심을 깊게 하는 듯하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다가는 국정 운영 자체가 마비된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박영선

양정철

야당 '이화영 술판' 진상조사 추진... 검찰 "술 반입 없었다"

이화영이 폭로한 검찰 회유 의혹 민주당 조사단장에 '처럼회' 민형배 검찰 "명백한 허위, 법적 대응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발언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하는 등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검찰은 "명백한 허위"라며 조목조목 재반박하고 나섰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원지검 술판 회유조작 진상조사단(가칭)'이 꾸려진다. 단장은 강경과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맡는다. 당내에선 처럼



회 출신을 비롯해 '검찰개혁' 강경과가 당의 노선을 주도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8일 수원지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구치소를 향의 방문할 예정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2019년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검찰의 회유·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고 번복했다. 지난 4일 법정에선 "검찰이 회유하면서 (구속 상태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검사실 앞 창고에서 소주 마시는 걸 묵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사건과 관련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하는 데가 동네 건달들도 하지 않는 짓을 한다"며 "교도관들이 술 파티를 방치했다는 것은 검사의 명령·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음 날엔 SNS를 통해 "검찰실 앞 '창고'로 표시된 방에 안 들어갔으면 수감자가 그 방이 '회의실'인 걸 어찌 아나. 공범 수감자들 모임만으로도 불법"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와 정치권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고, 회유나 진술조작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조사에 임회한 변호사와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는 물론 조사

당시 음식 주문 및 출점 기록 등도 확인했다고 한다.

그 결과 당시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되거나 쌍방울 측에서 음식을 반입한 사실이 일절 없었고, 이 전 부지사가 음주 장소로 언급한 검사실 앞방 '창고' 표기 사무실(1315호)도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이날 언론을 통해 '2023년 6월 30일 검사실(1313호 검사실 오른쪽 진술 녹화실)에서 음주를 했다'고 새롭게 주장했는데, 당일 이 전 부지사는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1315호실 CCTV 공개 요구에 대해선 "사무실에는 설치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성지원·최모란 기자

▶1면 '관세 인상'에서 이어집니다

다만 미국이 중국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3배 올리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철강 수요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6%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번 조치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철강 산업이 주력인 펜실베이니아주 노동자들에게 제조업 보호와 대중 강경 노선을 보여 주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바이든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전미철강노조 조합원들에게 관세인상 조치를 직접 발할 계획이다.

펜실베이니아주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지지율에서 우열을 가리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합주다. 앞서 트럼프는 "재집권할 경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승호 기자

워싱턴 날씨 (°F)

19일(금)	70~56	22일(월)	67~49
20일(토)	70~48	23일(화)	70~54
21일(일)	62~50	24일(수)	70~49

4월 18일(목) 78~50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MATCHINGPOINT 매칭포인트 결혼정보회사

VA/MD/DC 한인들을 위한 새로운 결혼매칭서비스 런칭!

가까운 인연, 먼 길을 돌아오기에 당신의 노력과 전문적인 만남의 주선이 필요합니다. 매칭포인트는 초혼, 재혼을 위한 의미있는 만남을 소개합니다.

QR코드 스캔 후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가입 절차 확인 및 편리하게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571-591-7727**

웹사이트 **www.mymatchingpoint.com**

“이렇게 가혹한 아동학대는 처음” 아들 몸에 불 붙인 엄마, 징역 25년형

화상 방치해 피부 ¼ 영구 손상
처벌 두렵다며 병원에도 안 데려가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 재판부가 아들에게 벌 준다며 불을 붙여 심각한 화상을 입힌 어머니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법원 기록에 의하면 피고 김벌리 테일러(31, 메릴랜드 저먼타운 거주(사진))는 지난 2020년 5월 씨리얼을 먹던 자신의 8세 아들이 아파트 주방을 어지럽히는 것을 보고, 아들에게 벌을 준다고 소독용 알콜을 붓고서 불을 붙였다. 불꽃은 삼시간에 아들의 상복부 신체와 얼굴 등을 덮었다.

이에 더해 테일러는 처벌이 두렵다며 911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부모에게 연락해 아들을 돌봐줄 것을 요청했다. 테일러의 부모는 2주 동안 손자를 돌



으나 화상이 악화되자 다시 병원에 갈 것을 요청했으나, 테일러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2주 동안 테일러는 아이를 보기 위해 부모의 거주지에 딱 한번만 방문하고 자신의 집에 머물며 술파티를 벌였다. 레즈비언인 테일러는 저먼타운에서 미용사로 일하면서 동성 부인 차레스 스노그래스-테일러와 함께 모두 6 자녀를 양육하고 살아왔다.

결국 아이의 조부모가 워싱턴DC 아동병원으로 손자를 데려갈 수밖에 없었으나, 치료시기를 놓쳐 신체 대부분이 고름으로 뒤덮였다. 아들은 팔과 가슴, 목에 3도 화상, 얼굴과 다른 신체는 1-2도 화상을 입었다. 병원 진단 결과

신체의 25%에 영구손상 화상을 입고 말았다. 아이는 20번 넘게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테일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담뱃갑을 하고 있었으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동안 아들이 튀김기름 냄비를 쏟아 화상을 입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테일러의 할아버지와 동성 부인도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으며, 할아버지는 집행유예, 동성 부인은 징역 6개월 복역 후 5년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다.

조사결과 아들은 희귀 장기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이전에도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평생 이렇게 심한 아동학대는 처음 봤다”며 테일러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당연하다”고 반응했다. 김욱재 기자

만나봤습니다

챗 피터슨 전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내가 ‘저항자’로 기억되어야 하는 이유”

챗 피터슨 전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이 책을 냈다. 제목은 ‘저항자(Rebel)’. ‘저항자’로 해석했지만, Rebel은 ‘반군’, ‘반항아’, ‘반역자’로도 해석 가능한 단어다.

피터슨 의원은 지난해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다. 본선이 아닌 6월 열린 민주당 경선에서였다. 민주당 상원 중진으로 5선을 앞둔 상황이었다. 그를 꺾은 인물은 정치신인으로 방글라데시계 이민자 사담 살린. 능력면에서 전혀 검증되지 않은 신인이 ‘정치적 올바름(PC)’으로 무장한 급진적인 민주당원들의 지원으로 피터슨 의원을 사실상 낙마시킨 ‘사건’으로, 선거결과는 평가됐다. 급진 민주당원들에게 피터슨 의원은 자신들과 뜻 맞지 않는 ‘반항아’였기에, 피터슨 의원은 낙마했던 것이다.

“북버지니아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의 ‘일당주의’다. 하나의 정당이 모든 시스템을 독점하면 결국 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피터슨 전 의원은 16일 열린 출판 기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를 ‘저항자’로 규정하며 책 제목이라는 은유로라도 밝히고자 했던 피터슨 의원의 심경이 엿보인다.

책에는 20여년간 피터슨 의원의 의정생활이 격정적으로 묘사됐다. 피터슨 의원은 특히 팬데믹 기간 막



바지 버지니아에서 스스로 입안, 상정, 통과까지 시켰던 ‘마스크 철폐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담았다. 그는 “마스크 철폐 법안으로 ‘자유’를 빼앗겼던 많은 아이들에게 웃음을 되찾아 줬던 점에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어젠다와는 달랐지만, 미국을 상징하는 ‘자유’를 위해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책은 한국어로도 출판될 예정이다. 책에는 피터슨 의원의 한인사회에 대한 애정, 한인 아내와 가족에 대한 사랑 이야기도 가득하다. 번역은 그와 오랜기간 함께했던 ‘정치적 동지’이자 ‘친구’, 이현정 교수(워싱턴 과학기술대학)가 맡는다.

박세용 기자

“북한, 미 본토도 직접 위협...확장억제 강화해야”

김진표 국회의장
조지워싱턴대서 강연

미국을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 “한국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북한 체제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 위협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의 대화 재개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도발을 전례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 추진 잠수함 등에서의 진전으로 북한은 이제 한반도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의 연합 방위태세 유



지 및 확장억제 강화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라면서 “이를 위한 집단적인 노력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불법적인 자금원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뒤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결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한미동맹과 관련, “한미는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라면서 “한미 동맹의 범위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인도-태평양, 전 세계로 확장됐으며 자유와 평화를 위한 전 세계적인 힘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간 경제 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는 핵심광물, 반도체, 에너지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다변화시키기 위해 체계적으로 협력해왔다”라면서 “양국은 차세대 인공지능 칩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끄는 한편 빠른 기술 발전이 초래하는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의회간 협력에 대해서는 “한국 국회는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미 의회 의원 모임’을 만들 계획”이라면서 “미국 의회도 새로운 과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코리아 코커스 등 기존 그룹을 조직적으로 재편, 이니셔티브에 호응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인 복지센터 ‘50주년 기금 모금 만찬’

21일 힐튼 맥클린 타이슨스 호텔

워싱턴 한인 복지센터(이사장 김진아)가 주최하는 ‘50주년 기금 모금 만찬’이 오는 21일(일) 저녁 5시, 힐튼 맥클린 타이슨스 코너 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모금 만찬은 ‘창립50주년:과거를 기리고 미래에 영감을 불어넣는다(Golden Jubilee: Honoring the Past, Inspiring the Future)’를 주제로 지난



50년간 이어진 복지센터의 시작과 변천사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50년 여정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날 만찬에는 지역사회 봉사로 공헌한 인물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뤄진다.

김윤미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오피스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따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최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2024년 장애인의 날

기념 예배 및 은혜 잔치

워싱턴 밀알선교단은 2024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밀알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 주신 베다니 장로교회의 만찬과 'The Sohn Fund (손영환 & 손목자 여사)'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장학금 수여식의 자리에 초대 하오니 많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4월 20일 (토) 오전 11시 30분 ~ 오후 2시

장소 베다니장로교회 (김영진 목사)

1201 Quince Orchard Blvd, Gaithersburg, MD 20878

밀알선교단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주중사역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봉사자를 기다리고 있으니 밀알선교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밀알선교단 주중사역

성인 장애인을 위한 모임

- 화요 모임: 밀알선교단 6:00pm
13925 Travilah Rd., Rockville, MD 20850
- 목요 모임: 메시아장로교회 6:00pm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아동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교실(매주 토요일)

- 락빌 Campus: 밀알선교단 10:30am ~ 2:30pm
13925 Travilah Rd., Rockville, MD 20850
- 볼티모어 Campus: 로렐침례교회 10:30am ~ 2:30pm
16024 Scaggsville Rd., Laurel, MD 20723
- 버지니아 Campus: 와싱턴한인교회 10:30am ~ 2:30pm
1219 Swinks Mill Rd., Mclean, VA 22102

워싱턴 밀알선교단 문의: 301-294-6342 / 240-355-2278

SM, 376만불 공사비 미지급 피소

한인타운 6가 건물 7년째 공사중 복합문화공간 건축프로젝트 중단

LA한인타운 한복판에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건축하고자 했던 한국의 대형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가 피소됐다.

소송 내용은 SM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등이 한인 시공 업체에 376만 달러 이상의 공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골자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다이아몬드바 지역 펍컨스트럭션이 SM 엔터테인먼트 USA와 자회사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 디벨롭먼트 등을 상대로 ▶계약 위반 ▶부당 해고 ▶공사 기여자 담보권 행사 ▶장부상 채무 불이행 ▶잔액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본지 확인 결과 소장은 지난해 11월 LA카운티수피리어 법원에 접수됐다.

문제가 된 건물(사진)은 SM엔터테인먼트 창업자였던 이수만 전 회장이 지난 2013년에 400만 달러에 매입한 LA한인타운 6가와 옥스퍼드 애비뉴 코너의 2층(약 1만3000 스퀘어피트)짜리 상가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건물을 레스토랑, 노래방 등이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인 'SMT LA'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공사에 착수했다. 아직까지 도면 등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 프로젝트는 중단된 상태다.



소장에 따르면 펍컨스트럭션(변호인 마크 펠드먼)은 지난 2016년 6월 29일 SM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 디벨롭먼트와 SMT LA 시공 계약을 맺고 이듬해부터 공사에 착수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계약 후 2023년 8월까지 시공을 위해 노동력, 건축 자재, 장비 등을 투입했다”며 “이후 피고 측의 전적인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음에도 SM 측은 공사 비용 지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소장과 함께 계약서, 시공 내용, 시공 스케줄 등의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펍컨스트럭션은 SMT LA의 시공만 맡았다. 디자인, 설계, 엔지니어링 등은 SM엔터테인먼트 측이 따로 업체를 고용했다. 펍컨스트럭션 크리스 이 대표는 “시공을 계속 진행하려면 SM 측이 LA시와 협의하여 도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세부 사항이 수시로 변동됐다”며 “SM 측은 수정된 도면을 계속 허가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약 2년 5개월간

공사가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펍컨스트럭션이 다시 시공을 맡았지만, 프로젝트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원고 측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시공 과정에서 35차례나 도면을 변경했다. 이 밖에도 공사 과정에서 문체접과 해결 사항 등을 요구하는 서면 제출(RFI) 200회 이상, 공사 내용 변경 요청(CO)만 100회 이상이다.

결국 지난해 5월 펍컨스트럭션과 보증 보험사 측은 공사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시공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했다. 이 대표는 “일반적으로 도면을 35회나 바꾸는 일은 거의 없으며 이는 건축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에도 펍컨 유지 비용 등이 계속 지출되면서 피해가 가중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공식 입장을 묻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미주 지역 핵심 관계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16일 오후 5시 현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장열 기자

40주년 맞은 예일대 한인학생회

예일대 한인학생회(KASY)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1984년 한국과 한인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관심을 증진하기 위한 취지로 재학생들이 결성한 이 모임은 매년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개최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나흘 동안 각종 문화공연과 토론, 한식 즐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한국 문화와 전통을 기념했다.

16일자 예일뉴스에 따르면 행사 첫날인 11일 오후 '서울 한 밤의 꿈'이라는 주제로 한 4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12일에는 학생들이 준비한 다양한 한국의 문화를 보여주는 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공연에는 KASY 이사회를 주제로 만든 콩트부터 태권도 공연과 전통무용 등이 소개됐다.

콩트는 쉐린 송의 '패스트라이브즈'를 바탕으로 예일대 학생들의 사랑, 저

항, 정체성을 탐색하는 내용을 담아 예일대생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

사흘째인 13일에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인 14일은 한국에서 연인이 없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비공식 기념일 '블랙데이'로 꾸며 싱글 학생들이 함께 짜장면을 먹거나 코리안 BBQ 치킨 등 다른 한식 별미를 즐기며 모든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KASY 40주년 행사에는 한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심 있는 학생들까지 수백 명이 참석해 학교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마크리 KASY 공동대표는 “한국의 디아스포라적인 정체성을 기리기 위해 올해 처음 태극기와 한반도기를 함께 게양했다”며 “무엇보다 세계적인 탈식민화와 해방에 대한 희망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지난해 11월 예일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주간 행사에 참여한 한인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예일대 한인학생회 페이스북]

코첼라, 올해도 거센 K팝 열풍

세계적인 음악 축제 코첼라에서 K팝 가수들이 공연을 선보여 화제다.

지난 12일 코첼라 밸리에서 개최되는 21일까지 열리는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이하 코첼라)에는 K팝 가수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거 참석했다. 지난해 한국 여성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가 아시안 아티스트

트 최초 헤드라인 무대를 꾸민 가운데 올해도 여러 기록이 세워졌다.

올해 코첼라 무대에 오른 K팝 아티스트로는 여성 아이돌 그룹 르세라핌, 남성 아이돌 그룹 에이티즈, 밴드 더 로즈, DJ 겸 프로듀서인 페기 구(사진) 등이다. 에이티즈가 지난 12일 가장 먼저 공연을 펼치면서 코첼라 무대에 선 최



초의 한국 남성 아이돌 그룹이 됐다. 에이티즈는 50분간 이어진 무대에서 '미친 꿈', '세이 마이 네임' 등 대표곡을 선보였다. LA타임스는 이들의 무대를 두고 “노래, 랩, 춤 등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폭발적인 무대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르세라핌은 한국 가수 중 데뷔 이후 최단 기간에 코첼라 무대에 오르는 기록을 썼다. 지난 13일 무대에 올라 '안티프래자일(ANTIFRAGILE)', '언포기븐(UNFORGIVEN)' 등 10곡의 노래를 40분에 걸쳐 들려줬다. LA타임스는 르세라핌의 공연을 두고 “젊은 여성들이 직면하는 완벽함에 대한 압박에 대해 솔직하고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젊은 팬들의 공감을 산다”며 “무대 세트

장이 르세라핌을 만나기 위한 팬들로 꽉 찼다”고 전했다.

더 로즈와 페기 구 무대의 반응도 뜨거웠다. LA 타임스는 더 로즈에 대해 “그들의 음악은 록밴드 U2나 1975처럼 풍부하고 섬세하다”고 평했다. 이어 페기 구에 대해서는 “한국 대중음악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언더그라운드 클럽 음악에서 자신만의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매물 늘면서 중고차값 하락세 지속

신차 늘고 고금리에 구매 꺼려

매물이 늘면서 중고차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두 자릿수 하락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자동차업계 전문가들은 공급문제에서 시장이 회복되면서 중고차 가격이 앞으로 최대 14%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금융정보전문매체 머니닷컴이 최근 보도했다.

온라인 자동차 거래 플랫폼 카그루스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인벤토리가 예상대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가격 하락 여지가 많아 중고차 및 신차 가격이 올해부터 향후 수년간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카그루스의 업계 동향분석 디렉터 케빈 로버츠는 “팬데믹 이전 가격은 어렵겠지만, 중고차는 평균 14%, 신차는 평균 7%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3월 말 기준으로 평균 2만 8600달러인 중고차 가격은 약 3900달러 하락할 수 있으며 평균 4만 9600달러인 신차는 4만 6000달러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LA 한인타운에서는 이미 2~3개월 전부터 중고차 가격 하락세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에텐자동차 제이 장 부사장은 “팬데믹 이전 정도는 아니지만 1년 전에 비하면 매물이 20% 정도 늘면서 가격도 20~25% 하락했다. 신차도 게스 모델



버지니아에 위치한 중고차 거래업체 카멕스 전경.

등 일부 차종은 인보이스 가격 또는 그 이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들이 선호하는 중고차에 대해 장 부사장은 “이자율이 높은 탓에 일시불로 구매할 수 있는 1~2만 달러 사이 가격대 문의가 많다”면서 “불경기다 보니 고장 안 나고 유지비 저렴한 모델이 인기다. 도요타 프리우스, RAV4, 캠리를 비롯해 현대 싼타페, 투싼, 쏘나타 등을 많이 찾는다”고 덧붙였다.

매물 증가 이외에도 중고차 가격 추가 하락이 겹쳐지는 이유는 고이자율 오토론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크레딧평가정보업체 익스피리언에 따르면 중고차 오토론 이자율이 지난해 말 11.9%로 전년 동기 10.4%보다 높아졌다.

자동차정보플랫폼 폭스 오토모터

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너선 스토크는 지난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는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를 서두르지 않아 수요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신차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도 중고차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 반도체 칩 부족으로 신차 구매가 어렵자 출고된 지 4년 미만의 중고차 수요가 급증한 여파로 최근 연식 중고차는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2020년에 비해 2년 미만 중고차의 딜러 인벤토리는 19% 감소했고 3~4년 된 중고차는 10% 감소했다.

반면 5년 이상 된 중고차 공급은 19% 증가해 구매 시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

중동 불안 왜 유가 급등 안 할까

중동 정세가 급격히 불안정해졌는데도 국제유가가 오히려 소폭 하락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세계 석유 시장의 ‘큰손’인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유가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쏟아졌지만 시장은 반대로 움직인 셈이다.

이를 놓고 “지정학적 위기를 상쇄할 만큼 석유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이란 분석,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한 지난주 토요일(현지시간 13일) 이후 15일 처음 장을 연 뉴욕-런던 거래소에서 유가는 동반 하락했다.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25센트(0.3%) 떨어진 배럴당 85.41달러, 6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은 35센트(0.4%) 하락한 배럴당 90.10달러에 마감했다. 16일에도 WTI는 0.05달러(0.06%) 하락한 배럴당 85.36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6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도 소폭 하락한 배럴당 90.02달러에 거래됐다.

직전만 해도 최근 유가 흐름은 고공 행진을 이어나갔다.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직후 이란이 ‘보복’을 예고하면서 정세 불안 요소가 반영됐기 때문이었다. 특히 지난 12일 유가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렇던 유가가 정작 이란의 공습 직후엔 떨어지자 “시장이 확신 가능성을 낮게 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스라엘이 막을 수 있을 만큼 이란의 공습이 제한적이었고, 이스라엘 전사 내각이 대규모 보복 작전을 즉각 실행하기엔 제약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석유시장이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지정학적 위기와 공생하는 법을 배웠다”(포린폴리시:FP)는 진단



14일 새벽 이란 테헤란의 팔레스타인 광장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드론 공격을 가한 후 반이스라엘 집회 모습 [로이터]

에서다. 과거엔 중동에서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 암시만 나와도 미국이 전략비축유 방출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유가는 직격타를 입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는 의미다.

글로벌 석유 공급 측면에서 중동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셰일 혁명’ 이후 원유 수출을 확대해온 미국의 하루 석유 생산량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5배(지난해 말 기준) 수준까지 증가했다. 또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브라질·가이아나 등 미주 대륙 곳곳에서 원유 증산이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석유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 데 반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는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 석유 수요 증가세가 둔화된 상태다.

하지만 중동발 불씨를 마냥 무시할 순 없다. 확신 양상에 따라 또 한번 ‘오일 쇼크’를 부를 수 있던 우려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 FP는 유가를 급등시킬 세 가지 변수로 ▶이란의 수출로 봉쇄 ▶이스라엘의 석유 시설 공격 ▶대이란 추가 제재 등을 들었다.

장의 변수도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 자산을 공격할 가능성이다. 중동 사태로 서방의 관심에서 멀어진 우크라이나가 비밀공작 형태로 석유 수송망 등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김상진 기자



월드옥타 세계대표자대회 개막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회장 박종범) 제25차 세계대표자대회가 지난 16일(이하 한국시간) 충남 예산종합운동장 황새구장에서 막을 올렸다. 세계한인무역협회 LA지회(옥태LA·회장 에드워드 손) 70여명을 비롯해 전 세계 월드옥타 회원 600여명과 지자체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가했다. 19일까지 열리는 세계대표자대회는 첫날 개회식과 공연에 이어 17일 충남도내 90개 기업과 옥타 바이어 106개사가 참여하는 수출상담회와 옥타 회원 통상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 개막식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옥태LA 제공]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멜라니아, 트럼프 성추문 재판에 “수치스러운 선거개입”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사진) 트럼프 여사가 남편의 성추문과 관련한 재판을 일부 남편과 같은 생각으로 억울해한다는 측근 주장이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이것은 정치적 기소”라며 “미국과 정적을 향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16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의 한 측근은 멜라니아 여사가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을 선거 개입에 해당하는 ‘수치’(재판부의 불명예)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그간 멜라니아 여사는 이 사건과 관련한 언급을 자제해왔다. 그는 지난 2018년 관련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분노하기는 했으나 이는 자신이 아닌 ‘그(트럼프 전 대통령)의 문제’라고 선을 그어왔다고 NYT는 설명했다.

다른 복수 소식통도 멜라니아 여사가 이번 재판을 억울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서는 성 추문 입막음 돈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멜라니아 여사는 이번 사건을 남편이 직면한 각종 사법 리스크 중 하나로 취급하기 시작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면서 멜라니아 여사가 최근 더 ‘강철 같은’ 면모를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니얼스와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며 34개 혐의가 적용돼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멜라니아 여사는 남편의 재선 도전에도 그간 대중 노출을 피해왔지만, 지난달 주별 경선 투표소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깜짝 등장하는 등 공개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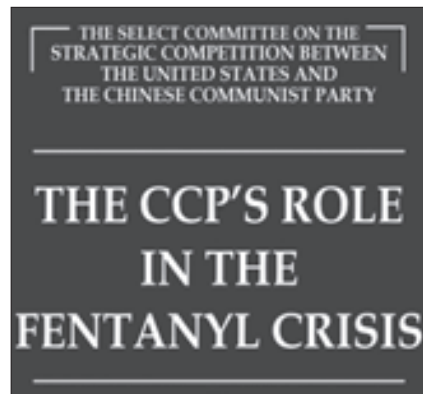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4건 중 하나다. 현재까지 11월 대선 이전에 재판 일정이 예정된 형사사건은 이 건이 유일하다.

그는 오는 20일 마라라고에서 열리는 정치 후원금 모금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좀비마약’ 펜타닐에 보조금”

중국 “엄격히 단속 중”

미국 하원의 미중전략경쟁특위는 16일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과 관련, “중국 정부가 세금 환급을 통해 불법 펜타닐 원료, 기타 합성 마약의 생산 및 수출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펜타닐 위기에서 중국 공산당의 역할’ 제목의 보고서(사진)를 내고 “이런 물질은 중국 내에서 불법이고 전 세계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이 알려진 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정부는 펜타닐 원료 및 합성 마약을 공개적으로 밀매하는 기업들에 금전적 보조금과 포상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중국 지방 정부 관계자들이 이런 기업의 일부를 방문해 그들의 지방 경제에 대한 기여를 칭찬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7개의 전자 상거래 사이트에서 중국 업체들이 마약 밀매와 명백히 관련된 불법 물질을 판매하는 사례 3만1천건을 찾았다”면서 “중국은 광범위하게 인터넷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으나 펜타닐 전구체 및 기타 불법 물질의 판매는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마약 밀매와 관련된 여러 중국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마약 밀매 화학 회사를 보유한 중국 정부 교도소, 수천 건의 마약 밀매 사례를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중국 상장회사도 포함된다”라

마이클 겔러거 특위 위원장(공화·위스콘신)은 이날 ‘펜타닐 위기에서 중국 공산당의 역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중국 공산당은 이런 행동을 통해 더 많은 펜타닐이 미국에 유입될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우행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파괴를 원하며 더 많은 미국인이 죽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특위는 펜타닐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마약 대응 합동 태스크포스(TF) 설립 ▲펜타닐 밀매를 차단하기 위한 무역 및 관세 관련 조치 시행 ▲자금 세탁 및 펜타닐 밀매에 악용되는 규제 및 법 집행 구멍 메우기 등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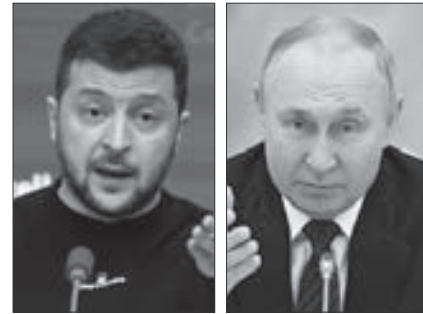
중국은 자국이 마약을 엄격히 통제·단속하고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놨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상황은 알고 있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국은 마약 금지를 가장 단호하게 하고, 정책이 가장 철저하며, 기록이 가장 좋은 국가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세계에서 관리 물질을 가장 많이 통제하고 가장 엄격한 국가 가운데 하나”라며 “중국의 마약 단속 부문은 시종일관 마약 제조 화학 물질의 유출을 엄격히 단속하고, 관련 기업의 합법적 경영을 규범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은 (펜타닐)

러시아 ‘봄 대공세’ 임박설...전쟁 3년차 우크라이나 악전고투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가 조만간 대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볼로디미르 푸틴

우크라이나가 탄약과 병력 부족, 방공망 약화 등 삼중고 속에서 악전고투하는 가운데 미국의 추가 군사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러시아에 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 최고사령관은 지난 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러시아는 조만간 우크라이나가 포탄 한 발을 쏠 때마다 10발을 발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밤 방송된 미 공영방송 P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추가 지원 지연으로 전선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또다시 밝혔다.

카불리 사령관은 “한쪽은 쏠 수 있고 다른 쪽이 반격할 수 없다면 반격할 수 없는 쪽이 진다”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패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자국 정보기관의 최신 정보라며 러시아가 올해 늦봄이나 초여름에 대규모 공세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부분 미국에 의존해온 우크라이나의 포탄이 바닥을 드러냄에 따라 추가 군사 원조가 시급한 상황임을 강조한 것이다.

러시아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거점 도시 아우디우카를 장악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주요 대도시와 에너지 기반시설 등에 공습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상원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601억 달러를 포함한 총 950억 달러 규모의 ‘안보 패키지 예산안’을

이를 통해 러시아가 탄약과 병력이 부족하고 방공망이 허약한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뚫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16일 분석했다.

크리스토퍼 카볼리 미군유럽사령관

처리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난색을 보이면서 표류하고 있다.

존슨 하원의장은 이번 주 패키지 예산안을 우크라이나 지원안과 이스라엘 지원안 등으로 분리해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지원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유럽 동맹국들의 포탄 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포탄이 얼마나 빨리 공급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 15일 정상회의에서 50여개국이 참여하는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의 틀 안에서 장거리 로켓포탄 지원을 위한 연합체를 구성하는 데도 합의했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지난 2월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유럽 밖에서 탄약 80만 발을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체코 정부는 최근 유럽 국가들의 참여로 필요한 자금을 모았으며 오는 6월께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한때 6만달러선 붕괴

지난 2월 말 이후 처음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7일 한때 6만 달러선 아래로 떨어졌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동부 시간 이날 낮 12시 5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16% 하락한 5만9천983달러를 나타냈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말 이후 처음이다. 지난 달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7만3천797달러) 대비 하락 폭은 15%를 넘었다. 오는 19일 예상되는 반감기(공급량 절반 감소)를 앞두고 비트코인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으나, 잇단 악재에 제동이 걸렸다.

다. 여기에 지난 1월부터 거래를 시작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도 둔화하면서 가격을 지탱하지 못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하락은 수개월간의 랠리 이후 가상화폐가 냉각기를 거치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며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에서 15% 이상 하락했으며, 일부 알트코인은 고점 대비 40~50%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시총 2위 이더리움은 2.64% 하락한 2천928달러로 3천 달러선 아래로 떨어졌고, BNB는 2.05% 내린 517달러, 솔라나는 127.71달러에 거래됐다.

LMAX 그룹의 시장 전략가인 조엘 크루거는 “대형 투자자들이 현재 가격에서 비트코인 매수에 나서지 않아 약세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면서도 “3월까지 두 차례 반등했던 중요한 지지선이었던 5만9천달러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오는 6월 예상됐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으로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

DAON GROUP LLC
TAX & ACCOUNTING SERVICES

다운 회계법인

- 회계 업무
- 신규사업 등록
- 세무감사 대변
- 세무 보고
- Payroll Service

* Text, Fax, Email 로도 세금보고 접수를 받습니다.

조동구 공인회계사
Eddie Cho, CPA

VA Text / Phone : 703-637-2006
7535 Little River Tpke. #325B
Annandale, VA 22003

MD Text / Phone : 410-787-9077
8600 Snowden River Pkwy. #300
Columbia, MD 21045

Fax: 410-787-6686 Email: echo@daoncpas.com, eddiehocpa@gmail.com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 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LOTTE market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물가안정
56탄

APR.18th - APR.25th, 2024

HARIM INSTANT COOKED GINSENG CHICKEN STEW



미리 준비하라! 건강이 최고닭

하림 삼계탕



LIMIT
2 EA

~~\$12.99~~

\$7.99

28.21 OZ



관심 중 오일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사정에 따라 조기종결 또는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STERLING, VA
30 Ridgeway Rd, Sterling, VA 20155

CENTREVILLE, VA
6000 Centerville Crest Ln, Centerville, VA 20121

CHANTILLY, VA
13958 Meadowood Dr, Chantilly, VA 20151

ANNANDALE, VA
3204 Park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ASHBURN, VA
43330 Farmwell Hunt Plaza, Ashburn, VA 20147

HERNDON, VA
490 Biber Street, Herndon, VA 20170

ELICOTT CITY, MD
8801 Baltimore's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CATONSVILLE, MD
6000 Baltimore's National Pike, Centerville, MD 21228

ROCKVILLE, MD
1902 West MD RD, Rockville, MD 20851

GAITHERSBURG, MD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SILVER SPRING, MD
13825-A Gemma Ave, Silver Spring, MD 20906

‘일시적 증상’ 무시하면 나중에 뇌졸중 진행

일과성 뇌허혈 발작(TIA)

시니어들에게 위험한 질환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어떤 시니어가 왜 이렇게 암환자가 많고 중풍환자가 많은지 모르겠다고 걱정하는 경우를 봤다. 물론 많이 앓지만 이유는 질병이 많아진 것이 아니고 이전에 비해 장수하기 때문이다. 이전 세대들은 암이나 기타 중증에 걸리기 전에 사망했다. 하지만 현대 의학은 절대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혈관 질환인 뇌졸중만큼 두려운 질환이지만 그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는 증상이 바로 일과성 뇌허혈(TIA)이다.

뇌혈관이 막히는 뇌졸중(stroke스트로크-중풍)은 면적이 안되는 질환이다. 하수도를 사용하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막히듯이 인체의 혈관을 오래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노인성 혈관 변화이기 때문이다. 뇌혈관의 노화로 인한 질환이다. 그러나 미리 예고해 주는 확실한 증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TIA(Transient Ischemic Attack)이다. 일과성 뇌허혈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미니 스트로크’라고 부른다.

신경내과 전문의는 “어떤 의미에서 미니스트로크를 만난 사람은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며 “미리 치료가 가능해 뇌졸중에 걸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전조 증상을 놓쳐 뇌졸중으로 결국 쓰러지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올가 램버트(가명)는 속으로 미용사에게 최근 로마 여행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염색약이 아직 머리에 남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바라보면서 입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눈송이 같은 빛이 왼쪽 눈 옆에 나타났고 오른손은 발톱 모양으로 말려 들어갔다. 그에게 관촬나고, 도움이 필요한지 묻는 미용사의 목소리는 마치 물 속에서처럼 울렸다. 램버트는 “압박감이 있었지만 고통은 없었다”고 말했다. 모든 장면이 몇 분, 어쩌면 4분 정도 지속되었다고 램버트는 회상한다. 당시 49세였던 그는 미용실을 떠나 근처 식당에서 가족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한 후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그날 오후에 있었던 이상한 일에 대해 설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램버트는 응급실에서 진찰을 받았다. 그곳에서 그는 혈압이 치솟은 채 일과성 허혈 발작, 즉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차단될 때 발생하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미국 뇌졸중 협회에 따르면 매년 24만 명의 미국인이 일과성 뇌허혈 발작(미니 스트로크)을 경험하지만,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수치는 더 많을



심한 두통이 오면서 한쪽 팔이 마비되는 경우 등은 뇌졸중이나 전조증상인 일과성 뇌허혈발작(TIA)일 가능성이 있다. 두 경우 모두 긴급응급실로 가야 한다. 증상이 나아졌다고 안심하면 안된다. [이미지투데이]

‘경고’... 저절로 치료 착각 24시간내 완전 회복돼 안심 증상 의심되면 ‘BE FAST’

것으로 추정한다.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55세 이상의 성인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램버트는 협할 약과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도움을 청해야 할 때

코네티컷 주 소재 예일 뉴헤이븐 병원 세인트 라파엘 캠퍼스의 신경과 부교수 겸 뇌졸중 의료 책임자인 하디 P. 아민 박사는 주인공 올가 램버트가 경험한 것과 같은 증상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말한다. 큰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일과성 뇌허혈(TIA)은 통증이 없기 때문이다.

아민 박사는 “일반적으로 통증이 있으면 사람들은 병원으로 달려가게 된다”면서 “신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잃어버렸지만 일시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능력 상실은 대부분 몇 분 이내에 빠르게 회복된다. 팔의 힘이 약해지거나 저리면 가끔 환자들은 “그냥 잠을 잘못 잤나 보다”라고 생각

한다. 떨쳐버리거나 그냥 참고 견디면서 저절로 나아지는지 지켜보려고 한다.

바쁜 워킹맘이었던 램버트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 발생했을 때 뇌졸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지만 그냥 지나쳤다. 왜냐하면 일상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조용한 경고 신호’를 알아차릴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일과성 뇌허혈 증상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AHA)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일과성 뇌허혈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일과성 뇌허혈을 진단하고 근본 원인을 이해하면 지속적인 뇌 손상과 장기적인 장애, 심지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뇌졸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매일 446명이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스웨스턴 메디슨 레이크 포레스트 병원의 비수술 치료 전문인 중재 심장 전문의(interventional cardiologist) 아리프 지반 박사는 “일과성 뇌허혈은 정말 나쁜 일의 전조일 수 있다”며 “향후 심각한 뇌졸중의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HA에 따르면 일과성 뇌허혈 발작을 경험한 사람의 최대 18%는 3개월 이내에 뇌졸중이 발생하며, 그 중 절반은 며칠 이내에 뇌졸중이 발생한다. 일과성 뇌허혈 발작을 경험한 사람의 약 1/3은 1년 이내에 뇌졸중이 발생한다.

올가 램버트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 발생한 지

며칠 후 다시 응급실을 찾았다. 이번에는 결국 뇌졸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TIA 경고 알아보기

전문가들은 일과성 뇌허혈 발작(TIA)의 증상은 뇌졸중의 증상과 동일하며, 일시적일 뿐이고 때때로 증상이 나타나면 금방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아민 박사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과 뇌졸중의 경고 징후를 인식하기 위해 약어 FAST를 강조한다. 처음 세 글자 FAS는 Face drooping(한쪽으로 얼굴 처짐), Arm weakness or numbness(한쪽으로 팔 힘이 약해지거나 마비), Speech difficulty(언어 장애를 의미하며, 단어를 이어 붙이거나 말도 안되는 말을 하거나 ‘입에 구슬이 걸린 것처럼 들리는’ 굵고 어눌한 말을 할 수 있다)이다. 마지막 글자는 To call 9-1-1(응급 전화를 걸 시간)이다. 전화를 걸기 전에 증상이 멈추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의 경우에도 계속 전화를 걸어야 한다.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증상은 시력 변화다. 뇌졸중이나 일과성 뇌허혈 발작을 암시하는 전형적인 유형의 시력 증상은 시력 상실이다. 따라서 한쪽 눈의 완전한 시력 상실을 발견하고 그것이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한쪽 눈 위로 밤 그늘이 내려오는 것처럼 묘사된다면 이는 응급 상황이다. 현실 세계에서는 일부 뇌졸중 인식 제고 캠페인에서 ‘B’는 균형을, ‘E’는 눈/시력 변화를 나타내는 약어인 BE FAST를 사용한다. 램버트는 돌이켜보면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BE FAST에 대해 알았다면 더 빨리 응급실에 갔을 것이다.

◆TIA에 대한 자세한 정보

▶TIA의 주요 위험 요소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 질환, 심방 세동, 흡연 등이다.

▶미니 뇌졸중의 일반적인 전조 징후로는 갑작스러운 발병이 있다. 몸 한쪽의 쇠약, 마비 또는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움, 한쪽 또는 양쪽 눈의 실명, 현기증, 뚜렷한 원인이 없는 심한 두통 등이다.

▶치료로는 원인을 찾고, 원인에 따라 그에 맞는 치료를 한다. 일반적으로 항혈소판제제 또는 항응고제를 복용하여 혈전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제나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는 뇌졸중의 장기적 예방에 그 효과가 잘 확립되어 있으며 뇌혈관에 이상이 생긴 원인과 전신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약물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목동맥에 협착이 심한 경우에는 뇌혈관 조영술이나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좁아진 목동맥 혈관을 넓혀준다.

장병희 기자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맛있는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E2 비자/투자이민
- 취업/가족초청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종교비자/이민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사업체 매매
- 국제합작투자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UMEKEN

또 그래?

위통 속쓰림 소화불량

지치고 힘든 위장을 위하여
위에 좋은 성분만 가득 담았습니다!

청정지역 오키나와 미야코 섬에 있는 우메켄 직영농장에서 재배한 제도아리(자색강황)는 오래전부터 약재로 사용되었으며 위장 건강에 탁월한 발효 양배추, 여주, 생강 및 5가지 약초가 함유되어 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도아리로 당신의 위장이 튼튼해지면 당신의 하루도 튼튼해집니다!*

- 제도아리 (자색강황)
- 발효 양배추
- 여주
- 생강
- 5가지 위장에 특화된 약초

위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한
우메켄 오키나와 제도아리



우메켄 오키나와 제도아리(정)

오키나와 제도아리로 위장은 건강하리!*

이런 분들 꼭 드세요!

- 배앓이와 위장 경련이 심한 분
- 위장장애로 트림, 구치가 심한 분
- 습관적 구토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
- 쉽게 식중독에 잘 걸리는 분
- 소화 불량과 위통으로 고생하는 분

같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빠르고 시원하게~ 우메켄 소화효소!

- 5대 소화효소 함유
- 지방 분해 리파아제
 - 단백질 분해 프로테아제
 - 섬유소 분해 셀룰라아제
 - 탄수화물 분해 아밀라아제
 - 유제품 분해 락타아제



쉽게 체하고 속이 늘 더부룩하며 위산과다, 식후 무기력증이 심한 것은 몸속에 부족한 소화효소!

위, 소화를 위한 효소 총집합
우메켄 소화효소(과립)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늦게 핀 사과꽃의 희소식, 올해 사과 생산량 늘어난다

지난 16일 대구 군위군 소보면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 과수시험장에 줄지어 서 있는 사과나무 가지 사이로 하얀 꽃잎이 탐스럽게 피어 있었다. 46년 전 국내 최초의 사과 신품종으로 개발한 홍로의 꽃이다. 국내 사과 생산량 2위 품종인 홍로는 매년 9월 초·중순에 나오는 중생종으로 '추석 사과'로도 불린다.

이곳에선 여전히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소비되는 사과 품종인 후지(富士·부사)도 재배하고 있다. 후지 품종의 사과나무에선 드문드문 꽃망울만 보일 뿐 꽃잎이 별로 피지 않았다. 후지는 홍로보다 수확 시기가 늦은 편이다.

기자를 안내한 이동혁 사과연구센터장은 "올해는 후지를 기준으로 꽃이 피는 시점이 지난해보다 닷새 정도 늦어졌다. 닷새가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사과 재배와 생산량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봄에 사과꽃이 늦게 필수록 꽃샘추위 등으로 냉해가 발생할 걱정이 줄어들었다. 올해 사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확실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대구시 군위군의 사과연구센터 과수시험장에서 이동혁 센터장이 홍로 품종의 사과꽃을 소개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주정완 기자

봄철 꽃샘추위가 가을 사과 작황 좌우

지난해 사과 농사는 12년 만에 최악의 흉작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사과 생산량은 39만4000t으로 2011년 이후 가장 적었다. 2022년(56만6000t)과 비교하면 17만2000t(30%)이 감소했다. 생산량 급감은 사과값 급등으로 이어졌고 장바구니 물가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애플플레이션'(애플+인플레이션)이란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지난해는 일시적인 기상 악화로 인한 매우 예외적인 한 해였다고 사과연구센터는 보고 있다. 봄철엔 심한 일교차와 꽃샘추위로 사과꽃이 많이 상했고, 여름철엔 잦은 비로 병충해와 낙과 피해가 컸다는 설명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월 발표한 '농업전망 2024'에서 올해 사과 생산량이 예년 수준인 연간 50만t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과 재배면적은 꾸준한 증가세

이동혁 센터장은 1994년 농업진흥청 사과연구소(사과연구센터의 전신)에 들어가 30년간 연구직으로 근무해왔다. 2020년부터는 4년째 센터장을 맡고 있다. 이 센터장은 "1990년대 사과연구소에서 선제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해 국내 사과밭 모양을 획기적으로 바꿨다. 과거엔 일본 책을 보고 사과 재배법을 배웠지만 2000년대 들어선 기술적인 면에서 일본을 한참 앞섰다고 말했다. 그는 "농촌 인구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 다시 한번 산업적 구조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센터장과와의 일문일답.

- 지난해 사과 작황이 매우 안 좋았다. 원인이 뭐가. "봄철 냉해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사과꽃은 예년보다 빨리 피었는데 일교차가 심해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사과꽃의 암술과 수술이 다 죽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지난해 여름엔 병해충 피해도 심했고 수확기에 강풍이나 폭우로 인한 낙과 피해도 컸다. 대략 10년에 한 번씩 이런 일이 생기곤 한다. 그만큼 이례적인

작년 사과 생산, 12년 만에 최악 올해는 50만t 수준 회복 기대감

"기후변화로 국산 사과 사라진다? 극단적 가정의 과장된 시나리오"

경우였다." "올해는 상황이 어떤가. "올해는 시작부터 긍정적이다. 꽃 피는 시기도 지난해보다 다소 늦어졌다. 과거 수십 년 사례를 봐도 2년 연속으로 흉작이 반복되는 일은 없었다.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극조생종 사과가 나오면 시장에서 공급 부족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본다." "꽃 피는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가. "국내에서 사과 농사 자체가 어려워진 건 아닌가. "그렇지 않다. 사과 재배면적은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000년대 들어선 중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의 사과 재배면적은 3만3800ha였다. 2022년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2020년보다는 늘어난 규모다. 1990년대는 사과 재배면적이 지금보다 넓었지만 생산성은 낮았다. 이후 나무 사이 간격을 좁히는 밀식재배와 기계화 등으로 생산성을 크게 높였다."

"그렇다. 내가 처음 연구소에 발령받은 1994년에는 후지 품종의 사과꽃이 4월 23일에 피었다. 그게 점점 빨라지더니 지난해는 4월 11일 무렵에 피었다. 우리나라 봄철 기온의 특성상 4월에도 꽃샘추위가 찾아올 수 있다. 병해충은 관리를 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봄에 꽃이 떨어지면 대책이 없다. 그래서 사과연구센터에선 꽃이 늦게 피는 품종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 국내에서 사과 농사 자체가 어려워진 건 아닌가. "그렇지 않다. 사과 재배면적은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000년대 들어선 중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의 사과 재배면적은 3만3800ha였다. 2022년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2020년보다는 늘어난 규모다. 1990년대는 사과 재배면적이 지금보다 넓었지만 생산성은 낮았다. 이후 나무 사이 간격을 좁히는 밀식재배와 기계화 등으로 생산성을 크게 높였다."

한국 사과 120년, 홍로·감홍 등 신품종 활발

현대 한국 사과의 역사는 1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구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대구 동산병원의 전신)을 설립한 선교사들이 1900년 무렵 미국에서 사과 등 과일나무를 수입했다는 기록이 있다. 한반도의 남쪽에서 대구가 사과 재배의 주산지 자리 잡게 된 배경이다. 북한 지역에서 사과 재배는 대구보다 다소 앞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전에 『삼국유사』 등에도 야생종 사과(능금)가 나오지만 현대 사과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동혁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장은 "삼국시대에 있던 능금은 '말루스 아시아티카'라는 학명의 열매"라며 "16~17세기 중국에서 모래처럼 과육이 부서지는 품종이 들어오면서 모래 사(沙)자를 써서 사과라고 했다"고 전했다.

국내 최초로 산업적 의미의 사과 과수원을 시작한 곳도 대구였다. 1904년 무렵 일본인 과수업

자가 일본에서 사과 묘목을 들여와 국광 등을 재배했다고 한다. 이후 1970년대 일본에서 신품종인 후지(富士)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홍옥과 국광이 국산 사과의 주종을 이뤘다.

현재 국산 사과의 1위 품종은 후지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사과 재배면적에서 후지의 비중은 66.1%였다. 2위는 1978년 신품종으로 개발한 홍로(13.9%)가 차지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전신인 원예시험장에서 선보인 품종으로 맛도 좋고 저장성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홍로는 1980년대 후반 농가에 보급된 뒤 재배 면적이 빠르게 늘었다.

고당도 품종인 감홍(2.5%)은 비교적 비싼 가격에도 경북 문경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 품종의 여름 사과인 쓰가루(아오리)를 대체하는 국산 품종인 썸머킹도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추세다.

기후변화에도 빨간 사과 생산 가능

국립원예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는 2년 전 사과에 대한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한 적이 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사과 등 주요 과일의 재배지 변동을 예측한 결과다. 연구소는 2070년에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사과를 재배할 수 있고, 2090년에는 국내에서 경제성 있는 사과 재배지(재배 적지)가 사실상 사라지는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에는 '사과 소멸 시나리오'라는 말까지 나왔다.

- 정말 국산 사과가 사라지는 건가. "기후변화에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다. 실제로 그렇게 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 꼭 재배 적지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사과를 생산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선호하는 새빨강고 예쁜 사과를 생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사과연구센터에선 햇빛이나 기온에 상관없이 유전적으로 빨간색을 내는 사과 품종도 개발했다. 강원도 홍천군을 중심으로 전국에 보급 중인 '컬러플'(컬러+애플)이란 품종이다."

- 사과 재배지가 점점 북상한다고 하는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과민 반응할 필요도 없다. 과거에도 지금도 사과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경북이다. 다만 대구에서 가까운 경북 경산 일원에서 경북 북부로 사과의 주생산지가 옮겨가긴 했다. 경남(2위)과 충북(3위)·전북(4위) 등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과를 생산한다."

밀식재배·기계화로 농가 일손 절감

- 그럼 기후변화의 영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 사과 색깔이 덜 빨갱게 나오긴 한다. 수확기 온도가 섭씨 18도를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예쁜 빨간색이 나온다. 맛에는 큰 차이가 없어도 빨간 사과가 시장에서 더 비싼 가격에 팔린다. 그래서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좋은 품질의 사과를 생산할 수 있게 신기술을 개발했다. 내년부터 농가에 보급할 예정인 스마트 과수원이다."

- 스마트 과수원은 어떤 건가. "사과연구센터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다. 사과나무의 간격을 1~1.2m로 좁히는 초밀식재배에 성공했다. 기존 사과나무의 간격은 2.5~3m였다. 이렇게 하면 기계화·자동화가 쉬워지기 때문에 농가 일손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다. 기존에 가지치기를 할 때 1만㎡(약 3000평) 기준으로 다섯 명이 닷새 정도 걸렸다. 이걸 기계로 하면 2시간 만에 끝낼 수 있다. 생산성이 비교가 안 된다."

- 농가에는 어떻게 보급할 계획인가. "내년에 다섯 곳(100ha)을 시작으로 점차 늘려 나가려고 한다. 농가에서 스마트 과수원을 하려면 기존 사과나무를 베어내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바꾸긴 어렵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스마트 과수원 60곳(1200ha)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직접 사과연구센터에 와서 현장을 보고 갔다."

주정완 논설위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구인 리셉티비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축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트리 지역]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말!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한국유심 판매 \$45
유럽유심 판매 \$50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Korea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VISIT KOREA YEAR 2023-2024

한국관광의 모든 것!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Wonderful TOUR
2024 Yearly Schedule

2024년 31년 전통 탑여행사가 아낌없이 준비한 고국투어! 직접 모시고 갑니다.

최고급 럭셔리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 \$2990+항공

- 1차 4/16-4/26
- 2차 6/18-6/28 (영어가이드)
- 3차 9/24-10/4
- 4차 10/15-10/25 (미감)
- 5차 10/22-11/1 (단풍특선)

서울/군산/전주/보성/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거제
부산/울산/경주/삼척/정동진/강릉/속초/제주

특선 워싱턴 최초 디렉스 28인승, 34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모든 옵션 포함

최고급 호텔 숙박
서울 롯데호텔/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부산 그랜드조선
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호텔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고국 1~5차 모두 제주 빼고 다낭이나 일본을 갈 수 있습니다.
고국+제주/다낭/일본 원하시는 일정으로 선택 가능.

4/22~5/02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미감
4/22~5/05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13박 14일 \$4390+항공	미감
4/22~4/30	정통 동유럽 8박 9일	\$3290+항공	미감
4/24~5/05	호주&뉴질랜드 11박 12일	\$3790+항공	미감
4/29~5/05	크로아티아 발칸 6박 7일	\$2890+항공	미감
5/03~5/12	바르셀로나&지중해 크루즈	9박 10일 \$4390+항공	미감
5/06~5/16	그리스&튀르키예 10박 11일	\$2890+항공	미감
5/07~5/17	스페인&포르투갈 10박 11일	\$3190+항공	미감
5/21~6/02	파노라마 서유럽 12박 13일	\$3890+항공	미감
5/24~5/27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미감
6/04~6/12	아이슬란드 일주 8박 9일	\$5690+항공	미감
6/18~6/26	스위스 알프스 8박 9일	\$3990+항공	미감
6/18~6/28	고품격 고국일주 2차	10박 11일 \$2990+항공	미감
6/28~7/08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5290+항공	미감
6/3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미감
7/01~7/04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미감
8/06~8/19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 14일 \$5990+항공	미감
8/09~8/19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5290+항공	미감
8/14~8/19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미감
8/15~8/21	알래스카 일주 6박 7일	\$2990(항공포함)	미감
8/30~9/06	알래스카 크루즈 7박 8일	인사이드 \$1990(항공포함), 발코니 \$2590(항공포함)	미감
8/30~9/02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미감
9/02~9/13	영국일주 11박 12일	\$5890+항공	미감
9/10~9/20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미감
9/18~9/26	정통 동유럽 8박 9일	\$3290+항공	미감
9/18~10/1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13박 14일 \$4390+항공	미감
9/25~10/1	크로아티아 발칸 6박 7일	\$2890+항공	미감
9/24~10/4	고품격 고국일주 3차	10박 11일 \$2990+항공	미감
9/25~10/5	그리스&튀르키예 10박 11일	\$2890+항공	미감
10/03~10/16	독일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미감
10/08~10/18	스페인&포르투갈	10박 11일 \$3190+항공	미감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미감
10/15~10/25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박 11일 2990+항공	미감
10/17~10/30	프랑스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미감
10/17~10/26	캐나다&뉴잉글랜드 크루즈	9박 10일 \$1190(인사이드)	미감
10/22~10/31	터키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외)	9박 10일 요금문의	미감
10/22~11/01	고품격 고국일주 5차	10박 11일 2990+항공	미감
10/29~11/08	산티아고 순례 10박 11일	요금문의	미감
11/12~11/25	아집트&이스라엘&요르단	13박 14일(사바산) \$3980+항공	미감
11/15~11/25	이스라엘&요르단	10박 11일 \$2980+항공	미감
11/27~12/01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190+항공	미감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 13일 \$1390(인사이드)	미감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 6일 \$2390+항공	미감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 7일 \$2390+항공	미감

고품격 고국일주와 동남아, 일본 여행을 한번에!

다낭 3박+고국 7박 (노출선) 1차 5/18-5/29 \$3090+항공 3차 11/9-11/20 \$3090+항공

일본 3박+고국 7박 2차 5/21-6/1 \$3590+항공 4차 11/12-11/23 \$3590+항공

연합상품

3박 4일 서남권 \$899+항공 일출발

4박 5일 동해권 \$999+항공 일출발

5박 6일 서남+제주 \$1499+항공 일출발

9박 10일 전국일주 \$2149+항공 일출발

3박 4일 동경 \$999+항공

3박 5일 오사카 \$999+항공

8박 9일 일본완전일주 \$2690+항공

고국 건강검진	동남아 여행	방콕/파타야	푸켓	하노이/하롱베이	다낭	대만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700/여 \$750 미국국적 남 \$910/여 \$975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 100만원, 여 113만원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460 <p>현대산업병원/서울대병원/가천대길병원</p>	<p>대한항공 한국자유여행 동남아항공 특가세일</p>	<p>3박 5일 \$590+항공</p> <p>출발: 격주 목요일</p> <p>워포사원, 콜로세움, 파타야 야시장, 산호섬, 전통수상시장, 플로팅마켓, 황금절벽사원, 코끼리 트랙킹, 약어농장, 백만년비유공원, 태국독산물</p>	<p>3박 5일 \$599+항공</p> <p>출발: 격주 수요일</p> <p>평안만 해양국립공원, 아프로디테소, 파도 야시장, 피피섬, 왓탈롱 사원, 코끼리 트랙킹</p>	<p>3박 5일 \$590+항공</p> <p>출발: 격주 수요일</p> <p>하노이, 엔드, 하롱베이, 허롱데마피코, 호치민명묘, 생할관, 비단광장, 한가동사원, 수상인형극</p>	<p>3박 5일 \$499+항공</p> <p>출발: 격주 일요일</p> <p>마블마운틴, 호이안, 투봉강, 일본내원고, 전가사당, 풍홍의집, 광조화관, 바나힐국립공원, 후예성, 티엔무사원, 섀퍼사원, 다낭대성당</p>	<p>3박 4일 \$690+항공</p> <p>출발: 격주 목요일</p> <p>국립공작박물관, 자오궁, 101빌딩, 라오하계 야시장, 서문정거리, 태로산행곡, 화련칠성담 해변, 일월담, 구죽문화춘, 아루레이왕국림원, 자우편거리</p>	<p>3박 5일 \$790+항공</p> <p>출발: 격주 수요일</p> <p>국립박물관, 가든스 바이더베이, 리버랜드스, 헨드스웨이 브릿지, 허지레인, 부기스재래시장, 마리언공원, 차이아티온, 섀토사원, 실로스타티</p>

메모리얼 데이 특선

천섬, 몬트리올 퀘백 레이크조지 3박 4일 5/24~5/27 \$899

나이아가라 왓킨스글렌 2박 3일 5/25~5/27 \$650

롱우드 가든 당일투어 5/25 \$159

뉴욕 특선 1박 2일 5/26~5/27 \$450
디렉스 호텔, 브루클린 덤보, 베슬, 허드슨 아드 옛지 전망대, 스테이크 특식

동부관광 탑여행사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미동부 미동부베스트셀러

뉴욕-천섬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5박 6일 \$1350 일출발
대행버스 출발: 4/22, 6/24, 7/22, 8/5

3박 4일 \$899 일출발
대행버스 출발: 7/8, 9/23, 10/21

서부관광

탑여행사이의 자랑

미서부 일주
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8박 9일 \$1450+항공 일출발

성극 **대니엘** \$199
5/16(마감), 5/30, 7/11, 8/1

토요 특선 당일투어

네슈럴 브릿지+사파리 5월 4일 \$125

노퍽 보타니컬 가든 7월 20일 \$109

뉴욕 동부 명소 해돋이 특선

뉴욕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2박 3일 \$650 일출발
대행버스 출발: 7/22, 9/16, 10/7

뉴욕 단풍관광

캠버랜드 기차여행
당일투어 \$159
출발: 10/17(목), 18(금), 19(토), 24(목), 10/25(금), 26(토), 11/2(토)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매주 일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매주 일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매주 수

옐로스톤
3박 4일 \$950+항공 일출발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일출발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금리로 사과값 못잡아”... 이창용 고심하는 이유

(한은 총재)

미, 금리 영향 받는 서비스 반등 “고금리 이어가는 게 적절” 평가

제품과 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장이 기준금리 인하 연기를 시사하면서, 한국도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한국은 금리 영향이 덜한 분야가 물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어, 고금리가 물가는 못잡고 경제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7월(2.4%) 저점을 찍고 지난달(3.1%)까지 0.7%포인트 다시 올랐다. 하지만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6월(3%) 저점을 기록한 이후 지난달(3.5%)까지 0.5%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물가의 재반등 폭은 미국보다

한국이 높지만 반등 양상은 다르다. 한국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지난 달 2.4%로 2월(2.5%)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미국 근원 물가는 3.8%로 동일하게 유지됐다. 전체 물가가 반등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근원 물가 하락세가 유지됐지만, 미국은 함께 상승한 것이다.

품목별 물가에서도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한국에서 물가 상승세(전년 동월 대비)가 5% 넘게 유지된 품목은 농산물(21.1%)·도시가스(6.4%)·석유제품(5.7%)이었다. 농산물과 도시가스는 에너지와 식료품에 해당하고, 석유제품은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받는 품목이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은 교통(10.7%)·집세(5.7%)·수도(5.3%) 등 서비스 품목의 물가 상승세가 5%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 청과매장에서 시민들이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와 식료품의 가격은 공급 등 외부 요인으로 주로 결정되기 때문에 금리 영향을 잘 받지 않는다. 최근 한국의 물가 재반등도 금리 요인보다 국제유가 등 에너지와 사과 같은 농산물 가격 상승의 영향을 더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금리 영향을 받는 서비스 물가는 미국의 옴세가가 더 컸다. 한은은 최

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견조한 경기상황 및 더딘 집세 둔화, 높은 임금 압력 지속 등으로 서비스 물가 흐름이 경직적인(sticky) 모습”이라며 “반면 한국은 노동 시장의 물가 압력이 미국에 비해 약한 데다 최근 소비 부진도 근원 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 시작한 고금리 처방도 한국과 미국이 달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금리 영향을 받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물가 반등을 하고 있는 만큼, 고금리를 당분간 더 이어가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금리 영향이 덜한 에너지와 식료품에서 물가 상승세가 두드러진 만큼, 적어도 물가 때문에 높은 금리를 고수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 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후변화 영향에 사과 가격이 높는데, 이

것을 금리로 잡을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다”고 토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역대 최대로 벌어진 한-미 금리 차이로 인한 환율 불안 우려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 내리지 않는 이상 한국도 금리를 못 내리거나 강도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결국 미국이 통화정책 전환에 나서지 않으면, 한국은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고금리를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이미 근원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릴 이유는 없다고 본다”면서 “원화 가치 하락 문제도 고려해야 하지만, 너무 늦은 금리 인화가 경기 침체 등을 유발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김남준 기자

AI발 전력 대란 다가오는데 한국은 원전·신재생 갈등만

아마존, 원전과 10년짜리 공급계약 대만도 TSMC 위해 전력수급 사활 “현실적인 소형원전 기술 선점해야”

반도체·인공지능(AI) 전쟁이 글로벌 에너지 대란으로 번지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 발달로 반도체 수요와 데이터센터 사용량이 급증해서다. 17일 산업계에 따르면 세계 각국과 주요 기업들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 대규모 투자를 병행하며 ‘무탄소’ 에너지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국 에너지 정책도 ‘원전과 재생에너지’ 양 날개를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대만 경제부는 지난달 22일 전기요금을 평균 11%, 산업용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최대 25%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영 대만전력공사의 누적 적자가 지난해 말 3826억 대만달러(약 16조원)를 넘자 내린 조치다. 25% 인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TSMC뿐이다.

대만 민진당 정부가 2016년 ‘2025년까지 탈원전’을 선언한 후 TSMC는 전력 확보 및 효율화에 사활을 걸었다. 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인 ‘RE100’ 주관사 클라이밋그룹과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가 지난 달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TSMC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물리적 PPA 기준 세계 5위 기업이다.



전력 확보가 중요한 빅테크 기업들은 원전에 눈을 돌리고 있다. 세계 클라우드 시장 1위인 아마존은 지난달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한 데이터센터를 6억5000만 달러에 인수했는데, 이곳은 인근 원전에서 100% 전력을 공급하며 향후 10년간 전력 공급 계약도 맺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는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구매 업체인 아마존이 원전과 맺은 첫 계약이다. 아마존은 204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넷제로 선언을 했고, 이미 RE100 회원사다. 아마존은 FT에 “풍력·태양광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무탄소 청정 에너지원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도 지난달 첨단 원자력과 차세대 지열 등의 공동 개발·상용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국내도 첨단 산업용 전력에 대한 문

제의식은 있다. 그런데 지난 총선 에너지 공약으로 국민의힘은 ‘원전 활용 및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개발 추진’을,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U자 형태의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한쪽만의 해법을 냈다. ‘보수는 원전, 진보는 태양광’이라는 해묵은 에너지 이념에 갇힌 모습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 1월 발간한 ‘전력 2024’ 보고서에서 내년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석탄 연료를 추월하고 원자력 발전량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내다봤다. 넷제로 목표와 전력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모두 증가할 거라는 분석이다.

특히 IEA는 2050년 원자력 발전이 현재의 2배가 될 거라고 봤다. IEA에 따르면 세계 데이터센터·AI·암호화폐 전력 소비량은 2022년 460TWh(테라와

트시)에서 2026년 적게는 620TWh으로 1.3배, 많게는 1050TWh로 2.3배 증가할 전망이다.

국제사회도 원자력을 넷제로 수단으로 인정하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는 원자력과 수소에너지도 ‘탈탄소’ 수단에 넣기로 합의했다. 지난 2월 유럽연합(EU) 역시 기후중립산업법(NZIA) 최종 합의안에서 탄소중립 기술에 원자력을 조건부로 포함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그린에너지실 임은정 과장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원자력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반도체 제조 기지의 쌍벽인 한국과 대만은 국도가 좁고 인구밀도는 높아 재생에너지 수급에 불리하다. 대만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올리겠다는 기존 목표를 2022년 15%로 하향 조정했다.

전력난도 심각하다. 지난달 미국 싱크탱크 제임스타운이 “TSMC가 일본 구마모토에 반도체 공장을 지은 배경에는 대만의 전력 부족도 있다”고 분석할 정도다. 정병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한국·대만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건 수출 비중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이라며 “제조업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역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서 전력 공급이 최대 난관으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부터 가동할 용인 반도체 팹 일정에 맞춰 일단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짓고 장기적으로는 호남의 태양광이나 동해안 원전에서 전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장거리 송전선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각각 31%와 30%로 TSMC(10%)보다 높으며, 미국·중국 등 해외 사업장에서는 이미 100% 전환을 달성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낮은 일조량과 영세한 사업 구조 때문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반도체 공정에 적합한 일일 전압·주파수 전력을 대량 확보하기 어려워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구매로 대체하는 실정이다.

한국은 지진이 잦은 대만·일본에 비해 원전 가동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정치적 고려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고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기술을 선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SMR은 기존 원전보다 입지 구하기가 쉽고 안전해 데이터센터용 전력 공급에 알맞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성민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혁신형 SMR 기술에 투자해 원전 이후 또 하나의 수출 아이템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서현·최선을 기자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봉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봉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변호사 임종범 *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걱정도 많고, 궁극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사무장 김진주 *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사사에 “북·일 관계개선, 한·미·일 협력보다 우선순위 낮아”

(전 주미 일본대사)

6자회담 대표 거친 외교통 인터뷰
“일본, 북과 국교정상화 추진하지만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이 더 중요”

지난 10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연계 강화 등 양국의 안보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사사에 겐이치로(72·사진) 전 주미 일본대사는 지난 1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역지력 강화를 위해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등을 갖추는 것은 동맹국이나 우방국과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제는 일본과 한국이 안보협력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이벤트 미일 정상회담 핵심은 “일본은 2022년 국가안전 보장전략 등 ‘안보 3문서’ 개정을 통해 반격 능력 보유를 비롯해 안보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맞는 형태로 일·미 동맹을 강화



한다는 것이 이번 안보 관련 합의의 핵심이다. 또 일·한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일·미·한 안보협력도 강화될 것이다.”

-일본이 방위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방위력 강화와 일·미 동맹 강화 논의는 1990년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급진전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중국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다. 여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한 것이 결정타가 됐다.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하면서 일본이 자체 방위력 강화와 일·미 안보체제를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한일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도 양국 공통의 문제다. 양국은 한 배를 타고 있다. 이제 일·한이 안보협력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일본의 군사적 확장 정책과는 전혀 다르다. 아세안



2005년 7월 서울서 만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왼쪽부터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중앙포토]

(ASEAN) 국가도 한때 경계했지만, 이제는 이해하고 환영한다. 중국의 도전이 워낙 커져서다. 일본은 스스로 전쟁을 도모할 의지가 전혀 없다. 2차 대전 이후 자위대는 단 한 번도 포탄을 쏘지 않았다. 일본이 위협을 받았을 때 대응하는 수동적인 움직임일 뿐이다.”

-중동 정세가 긴박하다. “양국 모두 에너지안보와 경제안보

의 관점에서 중동 분쟁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동 정세는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국이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에도 바쁘다. 이 때문에 일·한 양국이 동아시아에서 함께 역지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현재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나라는 일본뿐이다. 다만 핵·미사일 문제는 미·북 관계가 진전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일·북 대화가 이뤄지면 지역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진 봐야 한다. 현재로선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는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는 아니라고 본다. 일·미·한 간 안보와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도쿄=오누끼 도모코 특파원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일본 외무성에서 아시아대양주국장(6자회담 수석대표 겸임), 사무차관, 주미대사(2012~18) 등의 요직을 거쳤다.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3문서’ 개정을 위해 일본 정부가 지난 2022년 설치한 전문가회의의 좌장으로 일본 방위력 강화를 제안한 인물이다. 지난 8일 기시다 총리가 방미길에 오르던 날 관저로 불러 조언을 구했을 만큼 신뢰가 두둑하다.

윤 대통령, 기시다와 15분 통화 “한·일, 한·미·일 긴밀 공조 평화기여”

기시다 “파트너 한국과 협력 심화”
방미 결과 설명하려 먼저 통화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최근 미국을 국빈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하고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으로 역내 평화에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
요청으로 오후 7시부터 7시 15분까지 15분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통화해

서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방미 결과 및 미·일 관계 진전 사항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일 공

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응해나가는 가운데,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자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심화하는데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은 북한에 대

한 양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 한·일 양국은 지난해 7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견고한 신뢰 관계와 양국간 형성된 긍정적 흐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올해에도 정상간, 외교 당국간 격의없는 소통을 계속해 나가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현일훈 기자

“사고 책임 떠안을라” 초등교사 봄소풍 보이콧

초등학교 체험학습 장소로 인기가 높은 경기도의 한 업체는 올해 ‘봄 소풍 대박’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예약이 예년보다 30~40%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치즈 만들기와 염소 밥 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 업체 사장은 “지난해 ‘노란 버스’ 논란과 서이초 사건이 있으면서 학교 60곳이 예약을 취소했는데, 올해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5월에 체험학습을 오겠다고 예약했다가 ‘안전상의 이유로 10월로 연기했다.’
봄 소풍 시즌이 찾아왔지만, 학교 현

장은 아직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으나 봄 같지 않다)’이다. 안전사고 책임과 각종 민원을 떠안은 교사들이 불철 체험학습을 ‘보이콧’하거나 최소화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 A초등학교는 안전사고 우려가 큰 저학년 교사들이 체험학습에 반대하면서, 고학년만 가는 방식을 택했다. 경기 김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도 체험학습을 두고 교사와 교장이 갈등을 겪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이 학교 교사는 “4개 학년 교사가 반대하는데도 교장이 전 학년이 현장학습을 가야 한다고 지시했다”며 “현장학습을 강행



하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해달라고 경기초등교사협회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꺼리는 이유는 안전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떠안

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지난해 7월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체험학습에 일반 전세 버스가 아닌 어린이 통학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며 시작된 이른바 ‘노란 버스’ 사태 당시 각 학교는 체험학습을 잇달아 취소했다.

이후 어린이 체험학습에 전세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했지만, 이동 수단 외 문제는 교사 책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여전하다.

실제 체험학습에 관한 안전 관리 문제로 법정에 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에서 현장체험 학습을 하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어

숨지자, 검찰은 인솔 교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첫 재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교원단체를 비롯해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교사들은 무죄 추궁 성명을 내고 릴레이 탄원에도 나선 상태다.

1년에 한 번뿐인 봄 소풍이고 교육적인 취지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 체험 학습을 가겠다는 학교도 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안전에 관한 학교의 문의 전화가 많다.”

지난해 급격히 감소한 체험학습이 대부분 회복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교원배상책임보험과 소송 전후 지원 등을 확대해 교사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서지원·최민지 기자

보험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www.GIANTREALTY.com

자이언트 부동산

자이언트 부동산 사장 **수잔 오**
Licensed in VA·MD·DC
703.975.4989
susanoh@giantrealty.com
office. 703.641.4989

부동산 전문지식

협상능력

리스팅 전문 서비스

결과가 다릅니다!

VA FAIRFAX HQ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MD ELLICOTT CITY Office 410.750.8040 Fax 410.750.399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매파 된 파월 ... 멀어진 금리인하, 시장 요동

파월 "2% 물가, 시간 더 걸릴 듯" 코스피 두달만에 2600선 아래로

좁혀진 식지 않는 미국 경제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물가를 잡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는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입장으로 급진화하면서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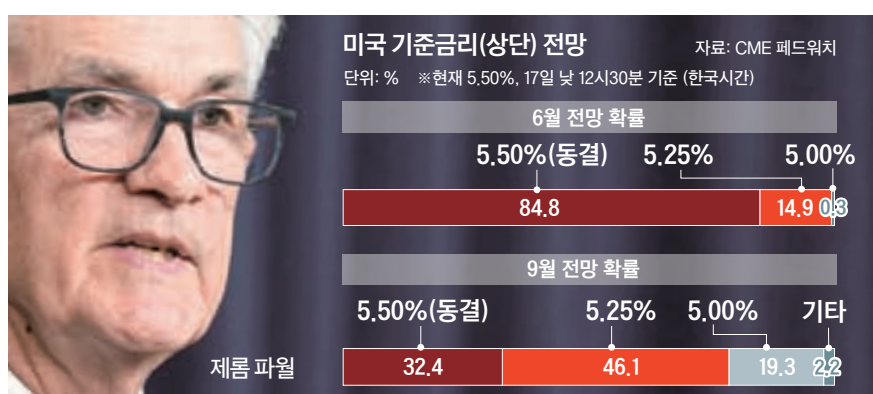
16일 파월 의장은 워싱턴DC에서 열린 캐나다 경제 관련 포럼에서 "최근 경제 지표는 (인플레이션이 2% 목표

에 다다르고 있다는 데)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한다면 현재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수준을 필요한 만큼 길게 유지할 수 있다"고도 했다. 당분간 기준금리를 현 5.25~5.5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연방 상원 청문회 당시만 해도 "더 큰 확신을 갖기까지 머지않았다"고 발언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였지만 이날 기준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장 중 한때 5.01%까지 상승했다. (채권 가격은 하락) 5%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배경에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나홀로 뜨거운 미국 경제 상황과 달리 나홀로 뜨거운 미국 경제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생산과 소비·고용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줄줄이 전망치를 웃돌면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잡힐 듯 보였던 물가를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날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2.7%로 0.6%포인트나 상향



조정했다. 세계 금융시장은 동요하고 있다. 당장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6선까지 올랐다.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달러 대비 엔화가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전해진 직후 154.79엔까지 뛰는 등 1990년 이후 최저치를 하루 만에 고쳐 썼다. 유로·캐나다달러 가치도 5개월 만에 최저치다. 영국 FTSE100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1.8%, 일본 닛케이 225 지수가 1.3% 하락하는 등 아시아·유럽 주요 증시도 급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국제 금 선물가격도 전일 대비 1.04% 상승한 온스당 2407.80달러에 장을 마감

(강)달러와의 '환율 전쟁'을 치르는 모양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텔스키 일본 재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세계은행(WB)에서 만나 "최근 양국 통화의 가치 하락(절하)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급격한 외환 시장 변동에 대응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일 외환 당국이 공동으로 구두 개입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한·일 재무 수장이 동시에 메시지를 낸 건 처한 상황이 비슷해서다. 한국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일본은 엔·달러 환율이 '154엔대'로 각각 위협수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은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물가 불안을 키운다.

17일 워싱턴DC에서 처음 열리는 한·미·일 3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맺을지 주목된다.

통화스와프는 두 나라가 정한 환율로 자국 통화를 일정 시점에 교환하는 계약이다. 시장 불안을 사전에 막아 '외환 안전판'으로 불린다.

세종=김기환 기자, 아야미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오른쪽)가 16일 워싱턴DC에서 스텔스키 일본 재무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병원 6곳 거부' 60대 심장질환자, 부산에서 숨져

(대동맥박리)

인근 대학병원 등 '의료진이 없다' 신고 뒤 4시간 동안 수술병원 찾아 이달 초에도 같은 질환자 숨져



계속되는 의경갈등, 메워지지 않는 의료공백

경남 김해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60대 환자가 인근 병원 6곳에서 응급실 이송을 거절당한 뒤 부산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고, 수술을 기다리다 사망했다.

유족은 "긴급 수술을 받았다고 살았을 거라 장담할 수 없으나, 의료 공백으로 인해 혹시 모를 생존 가능성을 저버린 것은 아닌지 원통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아무리 중증 질환이라 하더라도 환자를 살리지 못하면 의사를 죄인으로 만드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필수의료는 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17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김해 대동면의 한 밭에서 60대 여성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달 31일 오후 4시9분 쯤이다. 신고 1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인근 병원 6곳에 10차례에 걸쳐 응급실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의료진이 없다" "환자가 많다" 등의 이유로 거절당했다. 오후 4시42분쯤 부산의 D병원으로부터 수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A씨 이송을 결정했다. 구급대의 현장 도착 19분 만이다. 현장에서 22km 떨어진 D병원에는 오후 5시25분쯤 도착했다.

A씨는 D병원에서 2시간30분간 검사 끝에 대동맥 혈관 안벽이 찢어진 대동맥 박리 진단을 받았다. 대동맥 박리는 응급 수술이 필요한 급성 심장질환이다. D병원에서는 이 수술이 불가능했고, A씨는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재이송됐다. 오후 8시20분쯤 대학병원에 도착한 A씨는 수술 준비 도중 심정지 판정을 받았고, 오후 10시15분쯤 숨

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동맥 박리는 발생 직후 사망률이 30~40%에 달해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다. A씨 유족은 의료 공백 피해를 접수하는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 센터에 신고했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김해와 부산은 가까워서 환자 이송이 잦은 편"이라면서도 "의료 공백 사태 이후 병원의 (이송) 거부가 일상적"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했다"며 "A씨 사례가 의료 공백 여파에 해당하는 재해인지는 복지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부산에서도 50대 남성이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최초 신고 5시간 뒤에야 울산으로 옮겨져 수술받았고, 6일 만에 숨졌다.

당시 119 구급대는 10곳 넘는 병원에 이송을 문의했으며, 처음 도착한 부산의 병원에서 대동맥 박리 진단을 받았으나 수술이 어려워 울산의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채혜선·안대훈 기자

기업 비상 ... 삼성그룹 임원 주6일 근무 돌입

삼성그룹이 삼성전자에 적용하던 '임원 주 6일 근무'를 그룹 전체로 확대한다.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위기 극복에 동참하자는 취지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의 주요 계열사 인사팀은 최근 임원들에게 주 6일 근무 지침을 전달했다. 임원들은 사정에 따라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를 골라 근무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임원의 절반가량이 이미 주 6일 근무 중이었고, 앞으로는 모든 임원이 동참하기로 했다. 삼성전기와 삼성SDI 등 전자 관계사 임원들도 앞으로 주 6일 근무에 돌입한다.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 삼성E&A는 이미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삼성의 금융 계열사들도 조만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선을 기자



17일 오전 한 남성이 서울 한강대교 위에 올라가 시위를 벌여 출근시간 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2~4개 차로가 부분 통제돼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이 남성은 경찰·소방대원과 5시간 대치 끝에 스스로 내려와 경찰에 체포됐다. [뉴시스]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 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모든 절약은 한곳에서

2023

A

Return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 장 강 동 호 Don Kang

무보영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임플란트 Implant

응급환자 Emergency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invisalign Science in Every Smile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우리말 바꾸기

‘피다’와 ‘꼬시다’

그렇듯한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속이거나 부추겨서 자기 생각대로 끄는 것을 ‘피다’라고 한다. “대출금리를 낮춰 주겠다며 피어 돈을 가로챈 일당” “대출을 받아 준다며 저 신용자들 피어 사기 행각” 등처럼 쓰인다.

‘피다’를 대신할 수 있는 동사가 또 있다. ‘꼬이다’로 표현해도 된다. “투자만 하면 고 수익을 보장한다고 꼬여 돈을 가로채는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와 같이 사용한다. ‘피다’와 ‘꼬이다’는 복수표준어다. 어느 것을 써도 무방하다. 이런 유형의 복수표준어에는 ‘괴다/괴이다, 쪼다/쪼이다, 죄다/죄이다, 죄다/죄이다’ 등이 있다.

‘꼬드기다’도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어떠한 일을 하도록 남의 마음을 꼬여 부추기다는 뜻이다. “금연한 지 두 달째인데 꼬드기 지미”처럼 사용한다.

입말에서 세를 낫힌 ‘꼬시다’는 뒤늦게 표준어가 됐다. ‘피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랐다. 원래는 ‘고소하다’의 강원·경상·전라도 사투리였다. 이성과 사귀려고 수작을 부리다 등의 의미로 실생활에서 널리 쓰이면서 2014년 표준말이 됐다. ‘피다’와 어감상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 별도 표준어로 추가한 경우다.

‘피다/쪼이다, 꼬드기다, 꼬시다’는 말맛 차이가 있으나 상대의 마음을 꼬여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끄는 것을 뜻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긴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칼럼

다시 세상에 나온 ‘똑딱이 디카’



박낙희
경제부 부장

때문이었다. 멤버들이 똑딱이 디카를 들고 촬영하고 재촬영하는 모습이 디지털에 지친 신세대들에게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감성, 즉 레트로 열풍을 싹트게 한 것이다.

레트로라는 회고, 복고를 뜻하는 Retrospect의 줄임말로 일반적으로 과거의 추억을 그리워하는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지만, 이제는 MZ세대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사실 똑딱이 디카 이전에 필름 카메라 열풍이 먼저 불었다. 디카와 달리 필름은 제한된 컷 수에 현상, 인화라는 단계를 거쳐야 촬영한 이미지를 볼 수 있어 기다림과 설렘을 동반하는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수요 급증에 필름 값이 치솟으며 부담이 커지자 필카와 비슷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데카가 소셜미디어에 바로 공유할 수 있는 똑딱이 디카가 대안이 됐다고 한다.

MZ세대의 새로운 레트로 열풍은 패션에서도 볼 수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옷장에 있던 옷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알아보니 막내가 입고 다니고 있었다. 사이즈가 너무 크지 않냐고 했

더니 “요즘 학교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입을 것이 대유행”이라 한다. 그래서 입고 싶은 옷이 있으면 얼마든지 꺼내 입으라고 했더니 옷장서 보이지 않는 옷이 늘어났다. 너무 험령해서 허수아비에 옷을 입혀 놓은 듯한데도 좋다고 하니 솔직히 이해되지 않았다. 구글링해보니 이 같은 패션 트렌드는 ‘그랜드파 코어 룩(Grandpa Core Look)’이라 하며 역시 레트로 트렌드 중 하나라고 한다. 말 그대로 할아버지 옷 같은 스타일인데 친근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유행을 탈 타라는 자유로움이 MZ세대에게 어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K팝, K드라마, 할리우드 배우, 가수 등 유명인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랜드파 코어 룩을 입은 사진들을 공유하면서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한다.

어른 옷을 활용해 돈도 아끼고 자신만의 개성으로 재창조해 내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MZ세대의 재치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먼지만 쌓이던 구형 똑딱이 디카, 옷장에 처박혀 있던 오래된 옷들로 아이들에게 최고 소리까지 들으며 점수를 따게 되다니 묘지경 세상이다.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처럼 피부로 느끼긴 처음이다. 덕분에 새해가 되면 항상 빠지지 않는 정리하기, 버리기 목표 달성이 올해도 물 건너 간 듯싶다. 오래된 것을 낚거나 유행 지난 것으로 여기고 방치하거나 추억으로만 간직했었는데 이를 활용해 새로운 트렌드인 뉴트로로 만들어 즐기는 MZ세대. 그들이 펼쳐나갈 미래가 궁금해지는 이유다.

열린광장

눈 뜨고도 코베이는 세상



최숙희
수필가

어요. 엄마가 흥분할 때마다 틀린 결정을 내리지 않으려면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세요.’ ‘걱정해 주니 고맙다. 내가 생각이 짧았네’ 하고 답장을 보냈다. 아들이 나를 부주의한 관중 엄마로 생각했을까.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로 보는 것은 아니겠지.

중·고교 동창인 친구 두 커플과 미뤄두었던 환갑여행을 다녀왔다. 시카고, LA, 버지니아에 흠어져 살다가 십 년 전쯤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귀한 인연이다. 라스베이거스까지 비행기로 가서 유타, 애리조나, 네바다의 일곱 개 협곡을 돌아보는 여정이었다. 내 생애 최초의 에어비앤비

(Airbnb) 경험도 특별했고, 친구가 권유해서 유튜브로 국민체조로 하루를 시작한 것도 기억에 남았다.

추억이 될 사진과 간단한 메모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싶었지만,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참았다. 여행 사진을 실시간으로 공유했다가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유명 연예인의 기사를 기억했기 때문이다. 어떤 주택보험사들은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집주인이 SNS에 사진으로 집을 비웠음을 암시했는지도 확인한다니 놀랍다. 범죄자들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빈집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것이 일반화된 시대다. 소셜 네트워크에 개인 정보를 노출하면 사기꾼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무의식중에 같은 실수를 종종 범한다.

사이버 범죄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눈 뜨고도 코베이는 세상이다.

백성호 CPA, MBA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경력

- H&R Block
- U.S. Department of Commerce
- Hahn & Associates CPA Firm
- James Accounting Service
- (전) 1310라디오 세무상담 진행

- 개인 및 회사 세금보고
- 회사설립(Corporation, LLC.) VA, MD, DC
- 각종 공증업무(Notary Public)
- 사업체(비즈니스) 경영상담 및 각종등록업무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 TAX ID 신청 / Business Plan
- FAFSA / CSS Profile 작성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 개인 / 회사 세금 보고 전문
- 자영업자 세금 보고 전문
- 세금 보고 급하신분 환영
- 미국 전지역 세금 보고 가능
- 해외 계좌 및 자산 보고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BED BUG

빈대퇴치! ELIMINATE!

more ▶ www.sk-pest.com

▶ 주택 ▶ 식당 ▶ 상가 ▶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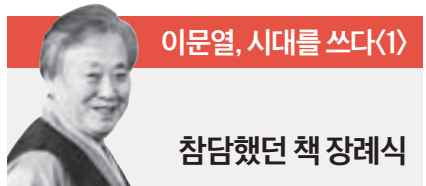
100% SATISFACTION GUARANTEED

에스케이소독 무료 견적

571-992-5789

✉ skpmva@gmail.com

분서갱유같던 책 장례식... 그때 날 옹호한 작가는 박완서뿐



이문열, 시대를 쓰다(1)

참담했던 책 장례식

나는 한때 펜을 검으로 여겼다. ‘펜을 검으로 여긴다’는 말은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대표작 『말』에 나오는 문장인데, 서른이 넘어 뒤늦게 작가가 된 나는 한동안 저 말을 무슨 신조처럼 떠올리며 지냈던 것 같다. 그렇게 된 데는 아무래도 신산스러웠던 내 가족사의 영향이 컸다고 봐야 한다. 옛날 오기를 부릴 때는 삼무자(三無者)라고 해서, 나는 나라 혹은 이념도 없고 아버지는 물론이요 스승도 없노라고 큰 소리치고 다녔다.

나라가 없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나의 몫을 인정해 주지 않는 대한민국을 내 나라로 여길 수 없다는 뜻이었다. 나처럼 율복한 아버지를 둔 불온한 사람들은 공무원이 될 수도 선출직에 나설 수도 없었다. 1980년야 전두환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폐지된 연좌제의 폐해다. 아버가 없으니 생활은 파탄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다. 국민학교(초등학교) 말고는 제대로 학교를 다닐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인생의 스승, 학문의 스승이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단독자, 독학자였다. 대신 내게는 검 같은 펜이 있었다. 과거 나는 한 인터뷰에서 말은 부드럽게 하더라도 글은 독하게 써야 한다고 말할 적도 있다. 그게 말의 속성이고, 내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르트르처럼 결국 펜의 무력함을 깨달았다는 점을 하나의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는지. 겪어 보니 펜은 전능한 검이기보다는 그것을 지닌 사람을 상하게 하는 면도날인 수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2001년 책 반환 행사는 내가 이전에 휘말렸던 어떤 논쟁이나 싸움과도 달랐다. 나는 지금도 어떻게 일이 그렇게까지 됐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발단은 그해 6월 29일 DJ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발표였다. 아침에 TV를 켜더니 방송 3사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일제히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발표를 생중계하고 있었다. 그해 2월부터 132일간 23개 중앙 언론사를 세무조사한 결과 6개 신문사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고, 짜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그 가운데 대표적인 보수 매체인 중앙·조선·동아 3개사에 각각 800억원 가량씩 합계 2541억원의 세금을 추징한다는 내용이었다. 언론사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뭔가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 지적했다가 정치적 사태로 번지며 책 반환까지 40명쯤 모여 내 책들을 관에 넣고 열살 소녀에 책 영정사진 들게 해



소설가 박완서(오른쪽)씨가 유일하게 이문열씨 소설책 반환 행사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중앙포토]



2001년 11월 3일 '이문열 돕기 운동본부' 사람들이 이문열씨의 경기도 이천 자택(부락문원) 앞에서 책 반환 행사를 하는 모습. 책 반환 행사가 벌어질 때 반대하는 민주참여네트워크대 회원들도 부락문원을 찾아 반환 행사 축하 대치했다.



책 반환 행사가 벌어질 때 반대하는 민주참여네트워크대 회원들도 부락문원을 찾아 반환 행사 축하 대치했다. [사진 이재유, KBS 캡처]

몰아가는 방식이 나쁘다고 봤다. 조선일보에 보낸 칼럼 '신문 없는 정부 원하나'가 7월 2일 자에 실렸다.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도 나치의 선전 선동을 연상시키지만, 야당이 사생결단식으로 반발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런 다음, 그림에도 불구하고 마주 보고 달리는 두 기관차 같은 정권과 언론 가운데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한다면 언론의 승리를 기원할 수밖에 없다고 썼다.

뜻밖에도 추미애 의원의 '곡학아세' 발언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키웠다. 그는 칼럼 게재 이튿날인 7월 3일 새천년민주당 당 4역 회의에서 "지식인들이 언론의 지면 할애를 통해 성장한 후 언론에 곡학아세해서야 되겠느냐"며 나를 공격했다.

내 책에 대한 반환 논의가 돈다는 얘기가 들렸다. 이번에는 동아일보 7월 9일 자에 '홍위병을 떠올리는 이유'라는 칼럼을 기고했다. 문화상품인 책도 얼마든지 소비재보호운동의 대상이 되지 않자 작가의 견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집단으로 반품한다면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의 문화 파괴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요지였다. 폭격 맞은 것처럼 내 홈페이지에 글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내가 오만하다고 여기는 듯했다.

11월 3일 책 반환 행사를 강행한 사

람들은 이름부터 별났다. '이문열 돕기 운동본부'라니. 부산에서 사진관을 한다는 화덕헌이라는 사람이 주모자였는데, 몇 년 지나 부산에서 진보신당 구의원이 됐다고 들었다. 나는 그날 집을 지키고 있을 수 없었다. 여름부터 약속한 대구 문학강연이 있었다. 그날 오전 '순석희의 시선집중' 라디오 프로에 출연했다. 오후 대구 강연에 맞춰 가려면 방송출연 후 오전 아홉 시 반에는 집을 나서야 했다. 나는 운동본부 측에 내 일정을 알린 다음 행사일을 한두 주일 앞당기거나 미뤄 달라고 했다. 일정이 이미 홍보가 돼 있어서 날짜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의 답이었다.

반환 행사 측이 순수한 독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나중에 법원 판결문에서도 드러났다. 운동본부는 '월간 인물과 사상 독자모임'이 주축이었다. 월간 '인물과 사상'은 내게 비판적이었던 강준만 교수가 발행하는 잡지다. 이 독자모임은, 2003년 7월 나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문에 안티조선운동의 회원이라고 나온다. 특정 매체 거부 운동을 펼치는 세력이 그 매체에 기고했다는 이유로 단죄하겠다고 나선 것 아닌가. 그들은 결국 패소했다.

5일 집에 돌아와서야 반환 행사의 전모를 들었다. 40여 명쯤 모였다고 했다. 전국적으로 150여 명이 보냈다는 내 소

설 733권을 관처럼 꾸미거나 유골함처럼 치장한 박스 안에 담아 우리 집을 둘러싼 문학 사숙 부락문원 앞까지 운반했다. 조시 '한 시절 천재 작가의 곡학아세를 장송하며'와 '조침문'을 진중권이 패러디한 '조책문'을 차례로 낭송했다고 한다.

내 소설책 표지 사진들을 이어 붙여 제작한 일종의 책 영정을, 열 살가량 여자아이에게 들려 앞세웠다고 한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랴. 진시황의 분서갱유, 히틀러의 베를린 분서를 빼고,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책을 불태운 사례를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하루 두세 갑씩 피우던 담배를 끊었다. 살아남아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책 장례식에는 이데올로기적인 성격도 있었지만, 정치적 '지역 가르기'도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장례식 두 주 전쯤인 10월 16일 부산에서 문학 강연이 있었다. 강연 도중 책 반환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아마 부산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말을 했다. 부산 사람들은 불같이 저지르면 저질렀지 책을 한두 권씩 찢끔찢끔 모으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었다.

내 발언을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 화덕헌이라는 사람이 이튿날 저녁 내가 묵던 호텔로 찾아왔다. "내가 부산 사람 아니면 전라도 사람이나"고 내게 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 실수라면

난 살아남으려 담배도 끊었는데 침묵하는 동료 작가에 더 큰 상처 책 장례식 상처, 갈수록 더 깊어져 내가 사형 당하고 있었다고 생각

"그럴 수도 있지"라고 답해 뭔가 빌미를 준 것이었다.

작가에게 소설은 영혼의 자식이라고 한다. 내 소설들이 그런 처분을 받는 것에 치를 떨 때 공개적으로 나를 옹호해 준 동료 작가는 2011년 작고하신 박완서 선생이 유일했다. 박 선생은 계간문예중앙 2001년 겨울호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그렇게까지 문학이 모독당하는 일이 생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문열씨와 같은 생각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작가에게 최소한 그런 상처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수많은 문학 단체의 침묵은 또 뭐니까. 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떠한 발언도 없이 그냥 넘기는 건 문학하는 사람들의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나는 침묵하는 대부분의 동료 작가들로부터 더 큰 상처를 받았다. 어떤 문인단체도 책 장례식 비판 성명 하나 낸 적이 없다. 다 지낸 얘기다. 전화해서 위로해준 이들은 있었다. 그 무렵 김훈은 술에 취해 전화하면서 물어준 사람이다. 나보다 두 살 위지만 친구처럼 지내던 박범신도 하루는 술 마시고 전화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울먹였다.

돌아켜보면 책 장례식은 나를 둘러싼 이념 시비의 정점이었다기보다 오히려 시작이었다. 인터넷 사용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면서 겉으로는 문화 운동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를 해치는 무기의 가능성이 열린 것도 그때부터였다고 생각한다. 책 장례식이 남긴 상처는 갈수록 깊어지는 것 같았다. 2003년께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정도도 화가 나곤 했다. 이후 내 생각이 좀 더 보수적이 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한참 후에 상징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정신의 자식이 불태워지는 것뿐 아니라 내가 사형을 당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랑감
전문



정승욱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김영선
연방세무사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버마케터 / 메디케어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챗터 7·챗터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챗터 5·챗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시 설

협치의 출발점이 새 총리 인선... 먼저 야당과 대화하길

어제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새 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서실장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와 정치권이 크게 술렁였다.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두 사람의 발탁을 고려한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해설도 있었다. 파장이 커지자 몇 시간 뒤 대통령실은 공식문을 통해 해당 보도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이 공식 부인하긴 했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다. 전언에 따르면 일부 대통령실 인사는 해당 보도를 시인했다고 하니 전혀 근거 없는 얘긴 아니었던 것 같다. 대통령실이 협치 총리로 야당 출신 인사를 고려하는 것 자체가 비판받을 일이다. 오히려 꼭 막힌

여소야대 정국을 풀기 위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아이디어다. 그러나 모든 일엔 수순이 중요하다. 일의 선 후가 뒤바뀌면 훌륭한 정책도 결국 패착이 되고 만다.

여권이 협치를 할 상대는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렇다면 협치 총리 인선은 당연히 민주당과 먼저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민주당은 ‘박 총리-양 실장’ 보도에 대해 뜬금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일각에선 야당 분열 공작이란 의심도 나왔다. 사전에 민주당과 아무 소통이 없었다는 얘기다. 협치 총리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간 보기’를 할 사안이 아니다. 우선 대통령실-국민의 협의 민주당과 공식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뒤 각자의 요구들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어디까지 서로 수용이 가능한지 허심탄회하게 따져보는 게 먼저다. 필요하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도 열어야 한다. 오랜 대화 끝에 어느 수준까지 협치를 할 수 있는지 시스템의 윤곽이 그려지면, 그때 이를 추진하기 최적일 협치 총리의 인선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지금처럼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인선부터 서두르면 야당은 반발하기 마련이다.

협치 총리를 발탁하려면 여야의 지지층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인사인지도 매우 중요하다. ‘박 총리-양 실장’ 보도 직후 보수층에선 강력히 반발하는 기류다.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조차 “당의 정체성을 전면 부정하는 인사는 검토조차 해

선 안 된다”고 주장했을 정도다. 박 전 의원이나 양 전 원장 모두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지만 개인적 관계와 정치적 관계를 혼동해선 안 된다. 윤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 협치 총리를 찾는다면 대상자의 풀을 크게 넓히고 다양한 조건과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

‘박 총리-양 실장’ 카드가 언론에 흘러나온 배경도 수상쩍다. 대통령실 공조직은 전부 금지조문이란 반응이어서 비선 라인이 가동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중대 사안이 어떻게 주요 참모들을 건너뛰고 보도됐는지 철저한 내부 점검이 필요하다.

**‘박영선 총리-양정철 실장’ 설에 정치권 술렁
대야 채널 가동해 협치의 시스템부터 만들어야**

흔들리는 외환시장, 정치권이 불안 더 키우진 말아야

외환시장이 심상찮다. 그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00원 선을 넘어섰다. 1400원대 환율은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던 2022년뿐이었다.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스텔스 스미치 일본 재무상은 16일(현지시간) 최근 양국 통화의 가치 하락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일 경제수장이 처음으로 외환시장에 대한 공동 구두개입을 단행한 것이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역대 네 번째 1400원대를 찍었다고 너무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외부 요인이 크기 때문이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와 미국의 고금리가 오래갈 가능성에 글로벌 강달러 흐름이 거세졌다.

문제는 원화 약세가 아시아 다른 통화에 비해 유난히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9조원에 달하는 외국인의 배당금 송금이 이달에 집중된 점이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고유가에 취약한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도 어느 정도 반영됐을 것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나 내수 부진, 총선 이후 정책 불확실성 등 내부 요인도 원화 약세를 키운 측면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7%로 대폭 올리고 세계 성장률도 3.1%에서 3.2%로 상향 조정하면서도 한국은 그대로(2.3%) 유지한 것도 불안한 대목이다.

잡나가는 미국 경제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지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대고 있다. 중동 위기나 미국 경제 호황 같은 외부 변수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도한 쏠림 현상을 막는 위험 관리를 잘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외환시장의 불안을 키우는 잘못은 없는지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내년 정부가 가야 하는 국고채 물량이 102조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고채 발행을 줄이고 있지만 전임 정부가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을 위해 공격적으로 발행했던 국고채 물량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선거 때 공약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포함한 민생 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했다. 25만원을 전 국민에게 주려면 13조원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현금 살포를 위해 추경을 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옛그제 입장 발표를 보고 “가슴이 확 막히고 답답해졌다”고도 했다. 뼈대한 재정 형편을 외면하고 서민을 위해 써야 할 나랏돈을 전 국민에게 나누자고 하면서도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이 대표를 보면서 ‘가슴 답답해 하는’ 국민도 많다.

민생,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상렬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역시 사람은 바뀌지 않는가 보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12분 모두발언을 보며 많은 국민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 4·10 총선 참패의 최대 요인이 된 윤 대통령 자신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독선, 불통에 대해선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 대신 윤 대통령은 “국정의 최우선은 민생”이라며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모자랐다”고 말했다. 민생이 국정의 최우선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가 민생의 어려움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는 짚어볼 일이다.

지난해 12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의 경제 성과를 비교 보도했다. 물가와 성장 등 종합점수에서 한국이 2위였다. 아니나 다를까,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보도를 소개하며 “정부가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자찬했다. 과연 ‘OECD 2위’는 국민 다수의 현실 인식과 부합할까.

체감 경기는 지표와 따로 노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미 경제가 ‘골디락스 경제(Goldilocks Economy, 고성장에도 물가가 안정적 상태)’에 가까운 호황인데도 유권자들에게 잘 먹이지 않아 대선 캠페인에서 고전하고 있다.

민생의 고충 가운데 하나는 일자리다. 3월만 해도 고용률 62.4%, 실업률 3%. 종합수치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사정은 사뭇 다르다. 청년층(15~29세)은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3만1000명 감소했다. 공식 실업률은 6.5%지만, 일이 있으면 추가 취업하겠다는 이들을 포함한 확장실업률은 16.2%였다. 더구나 청년 취업자 중 약 9%(34만9000명)는 포장·운반·하역 등 단순노무직에 종사한다(2023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양질의 일자리가 태부족한 게 현실이다.

자영업 경기는 최악이다.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금은 1109조원이 넘는데, 3

개월 이상 못 갚고 있는 돈이 27조원으로 1년 새 약 50%(9조원) 급증했다(나이스평가정보). 3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다중채무자’는 173만 명이나 된다.

게다가 만약을 위해 들어둔 보험을 깨고 받아간 해약환급금이 작년에 45조원, 보험약관대출이 71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뛰었다. 이런 게 민생 경제의 위기 신호다. 수출이 살아나 경제가 호전된다는 말은 딴 세상 얘기다.

그런데 정부 움직임은 이상하게 돌아갔다. 느닷없이 주식 공매도를 전면 금지 하더니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선언이 잇따랐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중엔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는 대목이 있다.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이 언론에 넘쳐났는데

**양질 일자리 줄고 자영업은 위기
불황에 보험까지 깨며 버티는데
구조조정·구조개혁은 말만 요란**

보지 못했다든 것인가.

윤 정부의 굴욕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무능하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다. 아무리 사과값·대파값이 많이 올랐다고 한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폭등, 소득 주도성장만 하라. 문제의 본질은 국민 다수가 지금 겪고 있는 혹독한 불황과 양극화다. 서민 경기가 바짝 메말라 먹고살기 힘든 상황에서 치솟는 생활물가, 그리고 정권의 안일한 대처가 민심에 불을 질렀다.

윤 정부 경제 운용의 큰 결함은 불황을 타개해 나갈 전략과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빚더미에 짓눌린 이들에게 이자 감면이나 환급, 전기요금 지원 등은 미봉책일 뿐이다. 경기 침체에서 제대로 벗어나려면 구조조정과 구조개혁 밖에 방법이 없다. 노동시장 유연화, 최저임금제 개편, 전기요금 정상화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윤 정부는 지난 2년간 말만 요란했지, 개혁에 서둘렀고 소홀했다. 국민들도 그 정도는 안다. 그러니 윤 대통령의 민생 강조가 자꾸만 공허하게 들리는 것이다.

수석는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 02-751-5555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www.joongang.co.kr 광고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문의: 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가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본사 인쇄: 대림인쇄사(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NHK, NHK, NHK, NHK) |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후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환주당시 미 전액 무료 돌려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매년대입 **703-354-1515**
 2층 오픈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4월 스페셜 SALE

안마의자 할부도 건강마을이 하면 특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48개월 특별한 비용으로 할부 구매하세요.

바디프랜드 글로벌 3대 디자인 어워드 석권! 세계가 인정하는 바디프랜드를 경험하세요!

이제 전신 마사지는 물론 브레인 마사지까지!
 MENTAL MASSAGE 브레인마사지 특허

하루의 피로가 짜~악 구석구석 뚫힌 근육이 짜~악 날아갈 것 같은 개운한 하루! 큰맘 먹고 사길 참 잘했어요!

자신 있게 선보이는 신제품 품격 있는 메디케어 안마의자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경험해보세요.

Pharaoh S II BLACK EDITION
파라오 S2
 블랙 에디션의 특별함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특별한 기능이 더해져 더욱 품격 있는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5 YEAR WARRANTY 레전드 마사지체어의 진화! 파라오S2 블랙에디션

일시불 구입시 반신욕기 드립니다.

팬텀2 팬리스2

첫 발을 뗐다 마침내 자유 팬텀 로보!

PHANTOM ROVO 새로운 기술 · 새로운 움직임 · 새로운 재미 관절에 문제 일으킨 분들에게 마사지와 자전거타기 운동을 동시에!

안마의자인가 의류기기인가 바디프랜드의 전신마사지 기술로 안마의자, 의류기기가 된다!

PHANTOM Medical

어떤 공간에도 부담 없이 어우러지는 팔콘

더욱 완벽하게 진화한 바디프랜드만의 로보워킹 테크놀로지 좌우 다리 독립구동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로보워킹으로 스트레칭 효과 UP!

- 새로워진 8가지 로보웨어킹 프로그램
- 손지압 패드
- 최적화된 XD 마사지 모듈
- 강화된 안전센서
-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쿼다이얼
- 3단계 온열
- 24가지 다양한 안마 프로그램
- 자동 체형 인식
- 폭신한 에어백
- 다리길이 자동 조절

내 집에 쏙 내 몸에 쏙~

Healthcare Robots **FALCON**

지금껏 달지 못했던 코어근육 스트레칭 효과 로보워킹 테크놀로지

Compact & Perfect 헬스케어로봇 팔콘 \$4,999

BODYFRIEND

오래된 안마의자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무조건 최고의 가격 보상판매로 신속히 알아해 드립니다.

Osaki PRO 4D MAESTRO LE **Osaki PRO 4D EMPEROR**

건강마을 파격 할인 가격을 확인하세요.

원적외선 명품 매트

휴표 휴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를 원료로한 휴표 휴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원적외선 명품매트

원사이즈 \$1,199
 싱글사이즈 \$899

▶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후면: 고급대(竹) 자리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휴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워던 지정 대리점

월단편백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청 처리하여 전통 찜질방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리오산 히노키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성욕 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지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8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영웅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돌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임정기념 세일 ~~\$1,799~~ **\$1,499** **절찬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3 간단 편리한 작동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 7개월 30일 무료 보증 서비스~

슬드 라이프

전지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률 1위 차지

일월 개화몽매트

2020년형 업그레이드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기모크세사 온열매트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원적외선 발열 기능 일월의 최첨단 7중 인공 태양열

토르마린 매트

토르마린의 효능

- 원적외선 방사
- 미세알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숙면으로 유도

한일의료기 마루형 전기매트

한정판매/조기종정/가능 제품

총행 \$199 대형 사이즈 \$399

스팀보이 온수매트

난방비 걱정없이 겨울 따뜻하게~

스팀보이는 항상 안전! Safety Zone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4/18 - 5/2, 2024

Pulmuone

Cold Noodles with Broth & with Spicy Sauce

**풀무원
 평양물냉면
 + 비빔냉면
 46.2 OZ**



\$6.99

**4 PACKS
 FAMILY
 PACK**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I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ICOTT CITY, MD 21043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파이낸스 & 연예/문화 Sports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April 18,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적인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우리집 뒷마당에 벽난로 설치해볼까

뒷마당 업그레이드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뒷마당 사용이 잦아졌다. 뒷마당 테이블에서 봄 햇살 받으며 커피 한 잔을 즐기거나 주말엔 가족 또는 친구들과 불러 바비큐 파티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사용 빈도가 늘면서 뒷마당 업그레이드나 개조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뒷마당은 겨울 우기를 제외하고는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어 뒷마당 개조는 그리 밀지는 장사가 아니다. 꼭 수영장 딸린 넓은 뒷마당이 아니어도 작은 규모의 뒷마당이나 패티오, 타운하우스 옥상도 조금만 신경 쓰면 멋진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가족 또는 지인들과 즐겁게 모임도 하고 파티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뒷마당 개조 아이디어를 알아봤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패티오나 뒷마당이라도 테크나 소파를 이용하면 편안하고 멋진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unsplash.com 캡처)

저렴한 휴대용 화덕, 난로 구입할 만 랜턴 이용하면 세련된 분위기 연출

▶루프탑 라운지
최근 신축 타운하우스들을 보면 패티오나 뒷마당보다 루프탑(rooftop)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옥상 공간도 뒷마당 처럼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시설뿐 아니라 운동공간, 채소밭, 허브 정원, 피자 오븐, 화덕 설치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
루프탑 공간 꾸미기를 시작하면 의자와 테이블 설치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데 이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한낮의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구조물 설치. 루프탑에 햇빛 가리개로 가장 좋은 시설은 바로 퍼골라(pergolas). 주로 목재 기둥에 지붕은 오픈돼 있는 형태의 퍼골라는 이 위에 차양을 씌우면 햇빛도 차단되고 파티를 즐기기에 그만이다.
어닝(awning)도 인기 있는 햇빛가리

개다. 퍼골라와 어닝은 단지 방문객이나 가족을 햇빛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야외 가전이나 바비큐 그릴 등을 직사광선이나 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구조물 설치 전 해당 지역 건축법과 HOA 관련 규정을 미리 알아보는 것은 필수다.
▶벽난로
캘리포니아도 한여름이 아닌 이상 밤이 되면 제법 기온이 떨어진다. 그래서 뒷마당에 벽난로가 있으면 저녁 시간을 보다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치까지 있어 모임이 훨씬 더 즐거워진다.
벽난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지만 구입 및 설치 비용은 만만치 않다. 대신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휴대용 화로나 화덕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휴대용 화덕은 5스퀘어피트 미만의 공간을 차지해 좁은 마당에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장점. 이중 굴뚝이 달린 야외 화덕(chimine)은 바람이 불어도 불이 꺼지지 않고 굴뚝을 통해 연기를 내보낼 수 있어 연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가격은 100달러 선에서부터 시작한다. 또 요즘은 가스 화덕도 많이 설치하는데 이는 장작 화덕에 비해 안전하고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좋다. 가스 화덕은 프로판 또는 천연가스를 이용해 작동하는데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야외 주방
뒷마당 공간을 꾸미는 이유중 하나는 바로 이곳에서 가족 또는 지인들과

맛있는 것을 나눠 먹으며 파티를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야외 주방 시설을 빼놓을 수 없다. 휴대용 바비큐 그릴부터 불박이 형태의 고급 그릴까지 다양한 취사 시설을 고려해볼 수 있다. 여기에 냉장고, 싱크대 설치 등 실내 주방을 옮겨온 듯 완벽한 주방을 세팅할 수도 있겠지만 휴대용 바비큐 그릴과 야외용 바카트(outdoor bar cart)만 추가해도 멋진 뒷마당 주방을 완성할 수 있다. 바카트에는 바위가 달려 집안에서 파티에 필요한 주류와 음료수, 식기 등을 담아 마당으로 끌고 나올 수 있어 편리하다.
▶조명
야간 파티를 더 멋지게 만들어 주는 것은 바로 조명. 마당 나무를 비롯해 퍼골라, 파라솔 등에 스트링 라이트(string lights)를 달아주는 것만으로도 마당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
이추현 객원기자
▶4면 '뒷마당'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출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www.GIANTREALTY.com

자이언트 부동산

부동산 전문지식
협상능력
리스팅 전문 서비스

결과가 다릅니다!

자이언트 부동산 사장 **수잔 오**
Licensed in VA • MD • DC
703.975.4989
susanoh@giantrealty.com
office. 703.641.4989

VA FAIRFAX HQ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MD ELLICOTT CITY
Office 410.750.8040 Fax 410.750.399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싸다고 샀다간 '피' 뵙니다... 미국채 ETF '숨은 비용'

(Fee·수수료)

현재 미국 30년 국채 금리는 4.5%대입니다. 고점(5%)에서 살짝 미끄러졌지만 앞으로 내려갈 길이 더 길어 보입니다.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는 요즘, 미국 30년 국채 상장지수펀드(ETF)에 지금이라도 들어갈지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다만 미국 장기채 ETF에 투자하기로 했다면 꼼꼼하게 따져볼 것들이 있습니다. 국내 채권 ETF 가운데 100% 현물 채권을 담은 상품은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 자본시장 규정상 국내 ETF에는 해외 현물 채권을 30%까지밖에 담지 못해서입니다. 국채 ETF 투자의 꿀팁을 알아봤습니다.

한국내 자산운용사에서 선보인 미국 장기채 ETF들은 선물과 합성 등 각각 다른 전략으로 30년 미국 금리를 추적하는 '같은 이름 다른 상품'이다. 그러다 보니 수익률도 클 때는 2배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투자자가 첫 번째 해야 할 건 ETF의 포트폴리오 열어보기다. 채권을 100% 담을 수 없으니 전략에 따라 상품이 달라지고, 상품이 달라지면 비용과 수익률까지 달라진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국채울트라30년선물(H)'(이하 KODEX)는 2018년에 상장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미국 장기채 ETF다. 현물을 담지 못하니 선물로 꾸렸다. 이 ETF는 미국채 울트라 선물을 편입하는데, 일반 현물(미국채 30년 클래식 선물 듀레이션 15~25년)보다 잔존 만기가 25~30년으로 긴 게 특징이다. 잔존만기가 길면 금리변동에 더욱 민감하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더 높은 수익을 얻지만, 반대일 때는 손해도 더 커질 수 있다.

증거금을 활용하는 선물 계약 특성상 현금유동성이 생긴다. 운용사는 이 현금으로 단기 우량채와 단기 채권 등에 투자해 초과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다만, 선물 상품이기에 분배금(이자)이 지급되지 않는다. 퇴직연금(IRP·DB·DC)에서 투자가 불가능한 것도 단점이다. 개인연금(연금저축)에서만 투자할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채30년스트립액티브(합성H)'(이하 TIGER)는 분배금을 받지 않는 대신 듀레이션을 최대치(30년)로 늘린 ETF다. 한국내 상장된 미국채 ETF 중에서 만기가 가장 길다. 듀레이션을 길게 만들어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을 극대화했다.

이 상품은 채권에서 이자를 뜯어내 만기를 늘리는 '스트립(STRIP·Separate Trading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ies)' 전략을 활용하는 합성형 ETF다. 합성형 ETF는 선물 ETF인 KODEX와 달리 개인연금은 물론 퇴직연금에서도 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단점도 있다. 합성 상품은 '스왑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약 연 1.1% 내외의 비용을 내야 한다. 이같이 각 ETF에는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숨어 있는 비용이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이하 ACE)는 '한국내 유일 실물 운용'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현물 ETF인 만큼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모두에서 투자할 수 있다. 앞선 2개 ETF와 달리 월분배금도 준다.

규정상 100% 실물(현물) 채권을 담지 못하는 데 어떻게 가능할까. 포트폴리오를 열어 보면 현



ETF 수익률 비교 2024년 3월 26일 기준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KODEX 미국채 울트라30년선물(H)	-0.3%	-5.0	4.8	-9.4	-12.0
TIGER 미국채30년 스트립액티브(합성 H)	-1.5%	-9.3	5.7	-16.1	-
ACE 미국30년국채 액티브(H)	-0.4%	-5.3	5.1	-9.2	-11.7

물 채권에 더해 미국에 상장된 미국상장 미국채30년 ETF(TLT US) 24.72%와, 미국상장 미국채30년 일별수익률의 3배 레버리지 ETF(TMFS US) 13.47% 씩을 활용해 채권을 100% 채우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ETF는 3배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는 상품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레버리지 잠식(Leverage Decay)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즉, 금리가 오를(채권가격 하락) 때 '음(-)의 복리 효과'가 발생해 수익률이 더 많이 깎이고, 회복할 경우에도 수익률이 떨어진다. 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담당은 "현물을 100% 담을 수 없어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비중을 점차 축소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금리 인하기에는 레버리지가 더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략의 차이는 수익률의 차이로 이어진다. 같은 미국 장기채 ETF를 표방해도 수익률은 1.7배 차이가 났다. 수익률(9개월 기준)은 ACE -9.2%, KODEX -9.4%, TIGER -16.1% 순이었다.

TIGER의 정승호 미래에셋자산운용 팀장은 "스트립 ETF 특성상 금리에 민감하고 변동성이 크다"며 "금리가 오를 때는 다른 ETF보다 마이너스가 크지만, 인하기에는 더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리 하락 구간이었던 6개월 수익률은 TIGER 상품이 더 좋았다.

한국내에선 100% 실물 채권을 담을 수 없는 상황이라 미국장기채 ETF는 이처럼 복잡한 구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숨어 있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결국 수익률을 갉아먹는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총보수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다.

합성 ETF의 경우 스왑 비용이 숨겨진 비용이다. TIGER의 ETF 투자설명서를 열어 위험 부문을 보면 스왑 비용이 '1.1% 이내'라고 돼 있다. 총보수는 0.15%에 불과하지만 훨씬 많은 비용이 숨어 있는 것이다. 다만, 정승호 미래에셋자산운용 팀장은 "합성으로 채권의 만기를 극대화한 만큼 수익이 날 때 (스왑 비용이) 상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내 운용사들의 경쟁적으로 ETF 보수를 낮추고 있다. 평균적으로 총보수가 해외 운용사 ETF보다 싸다. 일례로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ETF의 총보수는 연 0.05%로, 미국에 상장된 장기채 ETF인 TLT의 3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한국내 운용사 ETF 다수가 해외 상장 ETF에 재투자하고 있는데, 부담은 투자자들의 몫(피투자 ETF 보수)이다. 오히려 미국 ETF의 수수료(피투자 ETF 보수)에 각

한국내 운용사의 수수료까지 '이중 부담'하는 셈이다.

환헤지 수수료 역시 투자자들이 알아채기 힘든 비용이다. 현재 출시돼 있는 미국 장기채 ETF의 상당수는 끝에 '(H)'로 표시된 환헤지 상품이다. 환헤지는 환율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 좋은 선택지가 된다. 특히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환헤지 수수료가 비싸다.

이처럼 '총보수+피투자보수+환헤지 비용+스왑 비용+기타 비용'이 실제로 투자자가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이다. 그렇다면 모든 비용을 다 고려한 상품별 비용은 어떻게 될까. 단순히 보수만 고려했을 때는 KODEX 0.3% TIGER 0.15%, ACE 0.05% 순이지만, 숨은 비용을 더하자 값은 완전히 달라졌다. 총비용은 TIGER는 2.4%, ACE가 1.57%, KODEX는 0.53%였다.

이런 비용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ETF 기준가격과 기초지수와의 차이인 '추적오차'를 살펴보는 것이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본부장은 "비용이 커지면 ETF가 따라가야 하는 기초지수보다 ETF의 기준가격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연주 기자

단기연금 개런티 이자

- / 개런티 이자
- / 단기 (3년, 5년, 7년)
- / 복리 이자

이제는 원금보장과 함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때입니다.

원금	3년	5년	7년
\$100,000	4.95% \$115,597	5.30% \$129,461	5.30% \$143,548
\$300,000	4.95% \$346,791	5.30% \$388,385	5.30% \$430,645

*이자율은변경될 수 있습니다. **Virginia 기준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십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숨은 부동산PF만 65조 ... 증권사 만기도래액 10조 비상

(올해)

총선이 끝나자 금융·부동산 업계에서는 '4월 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책이 그동안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부실을 '정리'하는 쪽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간신히 버티던 '좀비 PF 사업장'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제2 금융권 등 약한 고리로 충격이 전이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내내 PF 사업장은 3000 곳 이상으로 추산된다.

최근의 '4월 위기설'은 그동안 정부가 만기 연장 등을 통해 건설사의 부도를 막아 왔는데, 지원이 끊기면 숨어 있던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우려다. 2023년 법인체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일이 4월 15일이라는 점도 4월 위기설을 키우고 있다. 감사보고서를 통해 PF 부실이 공론화되면 금융권이 만기 도래 PF의 연장을 꺼릴 것이고, 이게 건설사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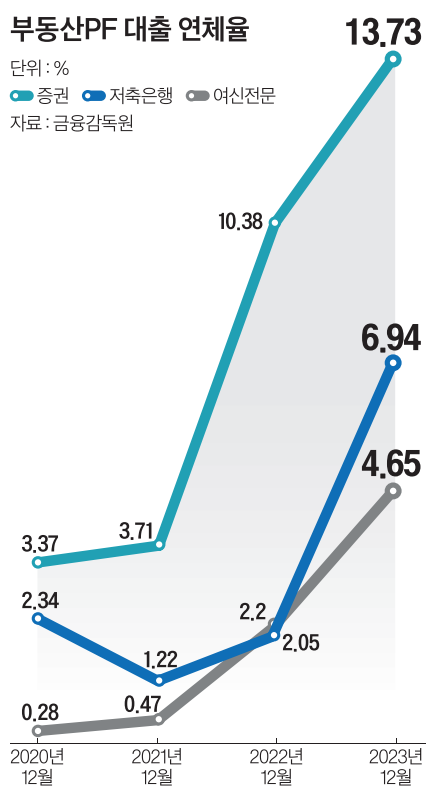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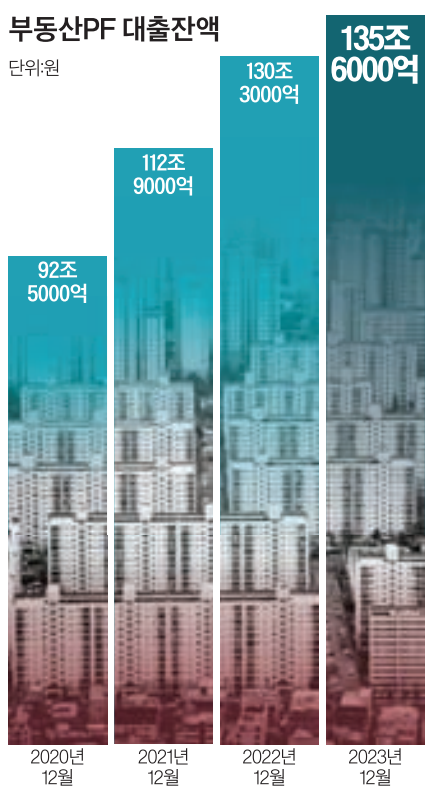
실제 PF 관련 지표는 계속 악화하고 있다. 우선 부동산 PF 연체율이 심상찮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2.70%로, 전년 대비 1.51%포인트 상승했다. 문제는 약한 고리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전 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13.73%다. 2022년 10.38% 대비 3.35%포인트, 2020년 3.37%에 비해서는 10.36%포인트 급등한 수치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의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평균 연체율도 각각 6.90%, 4.65%로 경고음이 울린다.

PF 대출 잔액도 증가세다. 금융권의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 2.7% '약한 고리' 증권사, 13.7% 최고 증권사 PF 상당수 후순위 대출 미래에셋 등 신용등급 줄하락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다. 1년 새 5조3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증권업계가 올해 감당해야 할 국내·외 부동산 금융 관련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10조3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만기 도래액이 5조40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2배 가까이 위험 노출액이 많은 것이다. 특히 증권사의 PF대출은 후순위 비중이 높아 경기 악화 시 타격을 클 수밖에 없다. PF 외에도 브릿지론, 해외 부동산 위함에 노출돼 있다. 이렇다보니 국제신용평가 S&P글로벌은 지난달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 위기관 한국신용평가 실장은 "증권업계 이익 규모, 자본 적정성 등을 감안하면 업계 전반의 대응력은 있으나, 일부 증권사의 신용도 하방 압력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뒤로 밀리면서 부동산 경기 회복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선 PF 사업장 부실이 시공사 부실로 이어지고, 시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또 다른 PF 사업장으로 위험이 전이되는 연쇄적인 위험전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올해 들어 수도권 처리된 건설사는 인천의 중건건설 사 영동건설 등 모두 9곳이다.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생존



기초에 놓인 건설사들이 스스로 문을 닫는 자진 폐업도 폭증했다. 올해 들어서만 1080곳(9일 기준 종합 148개사, 전문건설사 934개사)이 문을 닫았다.

다만 정부와 한은은 향후 PF 대출을 둘러싼 부실이 확산하더라도 금융사가 양호한 손실흡수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한은은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금융권이 양호한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제2 금융권의 경우 기간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신용평가도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이 과거 대비 개선됐고, 현재는 부실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저축은행에 부실이 집중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달리, 현재

는 전 업권에 부실이 분포해 정부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업계 분위기는 냉랭하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진단과 전망 그리고 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 "PF 대출에 참여했던 금융기관이 동반 부실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설연은 새마을금고 등의 PF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들 PF와 유동화된 금액을 모두 포함하면 실제 부동산 PF 규모는 2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 터진 저축은행 사태 때는 부동산 PF 규모가 100조원 정도였다. 당시 저축은행 30여 곳이 파산하고, 10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다. 만약 4월 위기설이 현실화한다면 폭발력이 2010년보다 더 클 수밖에 없

다는 얘기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유동성 공급과 PF 사업장 매각 등의 방안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펀드(CR펀드)를 10년 만에 제도입하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도록 취득세 중과배제를 적용하는 등 세제 지원책을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를 3조원 규모로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PF 사업장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8일부터 2주간 시중은행, 제2 금융권 등과 면담에 나섰다.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의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한 '사업성평가 기준'을 개편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업계는 당국이 부실 사업장의 기준을 엄격하게 잡을수록 무더기로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PF 관련 정책이 구시점 없이 산발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PF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 도출이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 김병일 변호사는 "금융기관과 건설업계,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부동산PF 구조조정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퇴출이 불가피한 사업장과 지원할 사업장을 분류해 부실 정리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방법을 시급히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배현정 기자

아시아 주식시장 달구는 각국 기업개혁 열풍

순넵 비하니의 마켓 나우

아시아 증시는 지난 10년간 글로벌 증시보다 뒤처졌다. 주요 원인은 주당순이익(EPS) 성장 부진, 지정학적 리스크 및 규제 강화로 인한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최근 중국 경기 부진이다. 그러나 현재 아시아 전역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는 잠재적으로 기업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하게 하고 저평가된 섹터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태평양은 전 세계에서 개인 투자자의 주식 시장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다. 몇몇 아시아 정부들은 직접 투자 또는 공적 연금을 통해 대규모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상장기업의 배당금 증가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최근 아시아에서 기업 개혁의 성공 사례로는 일본이 있다. 2023년 초 도쿄증권거래소는 상장 기업, 특히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이하로 거래되는 기업에 개선 계획을 공개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같은 일본 금융 당국의 노력으로 닛케이지수는 34년 만에 최고

치를 경신했다. 이를 지켜본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저마다 기업 개혁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한국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인도 정부는 그동안 저평가된 공공 부문 사업과 국영 기업 부문에서 정부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등 기업가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올해 시장가치 관리를 상향된 중앙 국유기업의 핵심 성과 지표이자 정책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아시아 정부들의 밸류업



노력은 기업의 배당 정책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채 비율이 낮으며 성장을 위한 추가 자본 투자 없이 더 높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또한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금 수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이 높아지면 주가 변동성은

줄어들게 된다. 아시아 밸류업 정책의 대표적 수혜주는 세 그룹으로 구성됐다. 첫째, 국영기업이다. 국영기업은 배당금 지급 비율을 높이면 해당 국가의 현금 흐름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된다. 둘째, '규제' 기업들이다. 이들은 복잡한 지분 구조 탓에 '지주사 할인' 리스크가 적용되고 있다. 셋째, 부채 구조가 최적화되지 않은 저성장 기업이다. 이 세 그룹은 지난 몇 년 동안 저성장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감소했으며, 결과적으로 저평가됐다. 아시아에서 밸류업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됨에 따라 이 세 그룹에서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발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트프린팅베스트먼트·포트폴리오 매니저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 질로우 프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p>리스버그 싱글홈</p> <p>\$1,110,000</p> <p>방5, 화5, 차고2 5289 Sf 잘 관리한 집</p>	<p>레스턴 콘도</p> <p>\$426,000</p> <p>방2, 화2, 1076 Sf 굿 로케이션 넉넉한 주차공간</p>	<p>로턴 타운홈</p> <p>\$580,000</p> <p>방3, 화3.5, 차고1, End Unit Walk Out, 1층 전체 마루 굿 로케이션</p>	<p>클리프턴 싱글홈</p> <p>\$840,000</p> <p>방4, 화2.5, 차고2 새지붕 등 업그레이드 많이함</p>
---	---	---	---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강화 집 사서 펜션 해볼까 서울 집 안 팔아도 '1주택' 세컨드홈 특례 83곳 발표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이 강원 양양 등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른바 '세컨드홈'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생활인구(하루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방소멸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주택이 하나 더 있어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컨드홈의 기준은 공시가

격과 위치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 한도는 12억원이지만, 2주택이면 9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기존엔 지방 주택이 있으면 세제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아 왔다.

부동산 투기 우려를 고려해 세컨드홈 특례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한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여기 해당한다. 접경지역이나 군 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 경기 연천군, 대구 군위군은 세컨드홈에 포함하기

로 했다. 가격 요건은 공시가격 4억원 이하다.

정부는 올해 1월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컨대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올해 1월4일 이후 인천 강화군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주택을 샀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지역 내에서 주택 2채를 보유했다면 예외다. 인구감소지역인 충남 공주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공주에서 1채를 추가로 구매하면 1주택자로 인정하지 않는 식이다.

정진호 기자

김봉렬의 공간과 공감

성과 속이 하나 된 요새, 푸나카종

히말라야의 작은 나라 부탄은 17세기에 국가의 역사를 시작했다. 북쪽 티베트에서 내려온 군벌과 라마승이 크고 작은 신앙 공동체를 세웠고, 이내 수십 개의 토호국으로 자리잡았다.

후에 통일을 이루어 현재는 불교가 국교인 입헌군주국이다. 토호국 시절부터 공동체 운영과 티베트의 외침을 방어하려고 특별한 건축 형식인 '중(Dzong)'이 발달하게 되었다. 신정일체인 티베트와 달리 부탄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되 상호 보완하는 '이원집정부' 체제를 운영했다. 좋은 행정 관청과 불교 수도원이 병존하는 복합건축이며 견고한 군사 요새가 되었다.

부탄의 중서부 푸나카는 1955년까지 왕국의 수도였고 그 중심시설인 푸나카종은 '큰 행복의 궁전'이라는 뜻이러니 부탄의 경복궁이다. 현재도 국왕의 결혼식이나 국회 개원식을 여는 국가적 상징공간이다.

대부분의 종이 산지에 위치하는 것과 달리 푸나카종은 두 강이 합류하는 평지에 있다. 아버지 '포'강과 어머니 '모'강이 3면의 자연 해

자가 되어 천혜의 방어 조건을 갖추었다.

푸나카종은 3개의 광장을 중심으로 수십 동의 건물이 결합한 복합체다.

첫째 광장은 행정관청으로 여러 사무실과 대민시설이 밀집해 있다. 둘째 광장은 수도원 영역으로 불전과 복층의 승방들로 이루어졌다. 행정과 종교의 두 광장은 모든 종의 공통 요소지만 푸나카종은 가장 깊은 곳에 세 번째 광장까지 가지고

있다. 이곳은 건국왕인 샤프룽의 미라가 보존된 최고의 성지다.

2개 층의 사무실과 승방이 두껍게 외곽을 두르고 광장에 면한 불전과 고

승의 거처들은 3~6층으로 솟아 입체적인 경관을 이룬다. 외벽은 돌을 쌓고 흙을 발라 담백하지만 창문은 섬세한 목조조각과 단정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다.

작은 나라의 어려운 환경에서 탄생한 '중'은 생존의 절박함을 초월적인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위대한 건축이다. 그림 같은 자연에 위치한 푸나카종은 그야말로 샹그릴라 같은 풍경이다.

건축가·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중앙일보 구독 문의: 703-281-9660

미분양 아파트 쌓인다 수도권에 또 '관리지역' 등장

(신규주택 공급 제한)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3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수도권에서도 다시 미분양관리관리지역이 나왔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최근 경기 안성시와 대구 남구, 울산 울주군 등 9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인 안성시가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에 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안성은 지난해 7~9월 3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10월 해제된 바 있다.

HUG는 미분양 세대 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가운데 신규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큰 곳을 관리지역을 지정한다. 여기에 포함되면 분양보증 발급 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기존 미분양 물량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주택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안성시의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5월 1679가구에서 서서히 해소돼 올해 1월 459가구까지 줄었지만, 최근 다시 대

미분양 석달째 늘어 6.5만 가구 수도권도 한달 만에 17.7% 증가 안성, 7개월 만에 관리지역 재지정 돈 막힌 건설업계 부실 위험 커져

규모 미분양이 발생했다. 올해 1월 청약의 진행한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안성하우스토리퍼스트시티'는 468가구를 모집했으나 14가구가 신청하는 데 그쳤다. 2월 말 기준 안성시의 미분양 규모는 1689가구로 경기도 전체 미분양(8095가구)의 21%를 차지한다.

전국 미분양 주택도 증가 추세다. 지난 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4874가구로 전월보다 1.8%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체 미분양 주택의 81.6%(5만 2918가구) 지방이고, 수도권은 1만 1956가구로 지방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전월보다 17.7%(1796가구) 늘어났다. 특

히 경기도는 1월 6069가구에서 2월 8095가구로 33.4%(2026가구)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역시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월 '1·10대책'을 통해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 6억 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할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에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부활해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미분양 주택이 오히려 늘면서 건설업 전반에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종합건설업 폐업 건수는 1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3% 늘었다. 일감이 줄면서 전문건설업 폐업 건수도 618건으로 1년 전보다 10.7% 증가했다.

김원 기자

▶ 1면 '뒷마당'에서 이어집니다

또 스트립 라이트 사이사이에 랜턴을 매달면 훨씬 더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만약 뒷마당이 넓고 지붕이 있는 공간에 다이닝 테이블이 있다면 이 위에 샵드리에를 설치하면 유럽 저택 뒷마당 같은 럭셔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 벽걸이 화분

뒷마당 벽을 이용해 정원을 가꾸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정원을

만들기엔 규모가 작은 뒷마당에 적합한 방법인데 벽걸이용 화분들을 뒷마당 벽에 걸어 식물을 가꾸면 된다. 화분뿐만 아니라 벽에 선반을 설치하고 그곳에 화분을 놓아둘 수도 있다. 화분에는 꽃이나 허브, 식용식물을 비롯해 텃밭식물까지 기를 수 있어 뒷마당을 보다 더 독특하면서도 세련되게 꾸밀 수 있다.

▶ 분수대

뒷마당에 분수대가 있으면 훨씬 더 분위기가 살아난다. 그렇다고 적지 않

은 비용을 투자해 분수대를 맞춤 제작할 필요는 없다. 홈디포(homedepot.com), 타겟(target.com), 아마존(amazon.com) 등에서 뒷마당 규모에 맞는 다양한 크기의 분수대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실내용 분수대는 주로 전기를 이용하지만 야외 분수대는 태양열을 이용한 제품들이 인기다. 야외 분수대 쇼핑 시엔 물소리를 미리 체크해 너무 소리가 크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가격은 크기에 따라 100달러 미만에서부터 수백 달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미역조물)
웨이리노래방
300m
뉴타운

미라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융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융자에 맡겨 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허마트 건너편 위치)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GS,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 ML2501870; MD 2501870; NC L-219065; VA MC-7782; TX 1601870; PA 106823; FL ML2525; SC 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약척같은 부동산
비키리

4월 **HOT** 리스팅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십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 Tel: 703-231-5572

주택 매매 / SALE



페어팩스
콘도

방2 + 화2

\$410,000

주택 매매 / SALE



페어팩스
타운홈

방3 + 화3, 차고 2

\$800,000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타운홈

방3 + 화3.5
1,496 sqft, 1993년

\$535,000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타운홈

방3 + 화3
1,360sqft, 1985년

\$500,000

약척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15년 연속 북버지니아협회 선정
다이아몬드 클럽 탑에이전트

브로커 비키리

NVAR Lifetime Top Producer
VA · MD · DC 브로커 면허소지

vikkilee@AmplusRealtyllc.com
www.AmplusRealtyllc.com



|||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용자 칼럼

장기화되는 전쟁 여파

도대체 언제쯤 이 전쟁들이 끝날까? 도무지 뭐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갈수록 아무런 해결점도 찾지 못한 채 길어지는 전쟁, 이로 인한 경제의 불안요소는 점점 더 커져가는게 현실이다.

미국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의 전쟁은 이미 2년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 분쟁이 체 해소되기도 전 바로 지난해 가을 지구상에 또 다른 한쪽에서 일어난 또다른 전쟁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또한 해를 넘기며 그 끝이 언제일지 모를 장기전으로 가는 양상이다.

전쟁은 인류에게 재앙이라는 말처럼 수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가져다 주는 이 전쟁들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는건 비단 나 혼자만의 바람은 아닐 것이다.

이 와중에 결국 유류가격은 계속 상승하면서 물가 또한 더 치솟는 분위기가 쉽게 사그라 들지 않는 모양새이다.

사실 우리는 현재 외부에서 일어난 전쟁 외에도 미국내에서도 이미 2년여 넘게 치열하게 벌어지는 전쟁을 경험하고 있다.

연준이 선포한 물가와외의 전쟁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매일 매일 경험하고 있는 전쟁이라 할수 있겠다. 잡힐듯 잡힐듯 하면서도 쉽게 잘 잡히지 않는 물가, 결국 이로 인해 강도높은 고금리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있고 결국 이는 많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고금리와외의 또다른 새로운 전쟁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는게 부인하수 없는 현실이다.

이 모든게 사실 넘치는 자금의 유통성의 여파라고 할수 있겠다. 지난 펜데믹 기간동안 워낙 시중에 어마무시한 자금들을 풀어놓다 보니 웬만한 강도의 고금리 정책으로는 쉽게 물가가 잡히지 않는건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연준 회의 때 마다 지난달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이제 이만하면 되었다는



배준원
그린웨이 편딩그룹 부사장

위안과 동시에 반면 아직도 멀었다는 자조가 늘 뒤섞이면서 일희일비하던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는 와중에 물가는 아직도 쉽게 잡히지 않고 금리인하의 기쁜 소식은 자꾸만 뒤로 미뤄지는 듯해서, 과연 지금의 고금리 정책이 물가를 제대로 컨트롤은 하고 있는지 이제에는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것 같다.

사실 과거의 사례들을 보자면, 외부

에서 일어난 전쟁들은 결국 상대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금의 정착지로 미국을 선호하게 되면서 많은 해외 투자자들의 미국유입을 부추겼었다.

그여과로 미국의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자율의 하락을 부추겼던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외전쟁의 장기여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이자율 하락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자율의 상승이 더 견고해지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그 해답이 외부가 아니라 국내에 있는듯 하다.

바로 우리가 지금 물가와외의 전쟁에서 쉽게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와중에도 주택시장은 그 열기가 전혀 식지 않는 모양새다. 웃돈을 얹어도 쉽게 계약이 되지 않는 높은 가격대의 주택가격, 거기에 계속 상승하는 이자율의 부담까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이중고로 다가온다. 만일 지금 이자율을 선택해야 한

다면 비록 높다고 느낄지언정 우선은 안전하게 망설임없이 락인을 해주기를 권한다.

설마 더 오르거나 하겠어? 에이 곧 다시 내리겠지? 하는 근거없는 기대감은 피해야 한다. 우선은 이자율을 안전하게 묶어두고 추후 혹여라도 다시 이자율이 더 낮아지게 되면 추가비용 없이 락인된 이자율을 하락조정해주는 Rate Float Down 같은 옵션을 통해서 이자율의 지속적인 상승으로부터 보호받을수 있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차선택을 적극 활용할수 있기를 추천한다.

바라건데, 인명 피해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 해외발 전쟁 소식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경제를 위협하는 물가와외의 전쟁 또한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보다 밝고 희망적인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수 있기를 소망한다.

>문의: 703-868-7147

바이어가 찾는 집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는데도 피부로 느끼는 주택의 거래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유는 여전히 주택시장에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신규주택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예비 셀러들이 사는 집을 팔고 이사를 하려 해도 올라간 주택가격에 이자율도 높아, 선뜻 집을 마켓에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사를 망설이는 셀러들은 차선택으로 집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그러나 큰 비용을 들인 리모델링이라도 집을 팔 때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많다. 셀러의 개성이 강한 취향이 많이 반영된 시설이나 구조의 주택은, 아무리 비용을 많이 들여 고쳤어도 팔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집을 팔 때 리모델링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하므로 주변의 시세를 먼저 알아보고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바이어들은 선호하지만, 반대로 다른 바이어들에게는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주택의 조건을 생각해 보자.

주택의 크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다. 단층 집과 이중집의 차이를 보면, 이중집보다 단층 집을 찾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 먼저 건강상의 이유로 노년층이 단층집을 선호한다. 1층에 침실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마스터베드룸이 2층에 있는 주택은 집을 팔 때 구매자들이 제한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린 자녀를 둔 구매자들도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단층집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요즘의 주택 구매자들은 연령대 구분 없이 단층집을 찾는 쪽으로 간다.

마당의 크기도 선호도의 차이가 뚜렷하다.

먼저 조경과 수도 요금 등 관리비 부담 때문에 작은 마당이 딸린 주택을 선호하는 바이어가 늘고 있다. 아예 뜰이 거의 없는 집을 찾는 바이어들도 있지만, 이웃과의 거리가 멀어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큰 마당을 선호하는 바이어들도 많다. 뒷마당이 넓어 자녀들이 뛰어놀 수 있고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요즘의 트렌드에 맞는 집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가뭄으로 인해 수도 요금이 많이 올라 수영장을 찾는 구매자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수영장이 딸린 주택에 대한 수요는 지역에 따라, 그리고 자녀를 둔 구매자 등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다음은 주택의 위치이다. 자녀가 있는 바이어들은 학교와 거리가 가까워 자녀들이 도보로 등교할 수 있는 주택을 가장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 인근 주택은 자녀가 없는 바이어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주택이다. 등 학교 시간과 출퇴근 시간이 겹치면 매일 집 앞이 차로 넘쳐나 출입이 어렵게 될 수도 있고,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에 휴식을 방해받기도 한다.

한편, 젊은층이나 노년층 중에 도심지역 주택을 선호하는 바이어가 많다. 직장과 가깝고 퇴근 후나 주말 여가생활에도 교외 지역보다 도심 지역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 특별히 노년층은 식당, 병원, 편의 시설과 가까운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상업이 밀집한 변화한 도심에 위치한 주택의 가치가 주택가 밀집 지역보다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셀 원-BEE부동산 부사장

HOA에 대한 이해

만물이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나듯이, 잠재되어 있었던 바이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봄이 왔다. 펜데믹 시기를 전후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 게다가 요즘은 HOA(Homeowners Association·주택 소유자 협회)도 많이 올랐다. 오늘은 HOA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HOA는 주거 지역이나 단지에서 소유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공동체다. HOA는 주택 소유자들 간의 규제와 관리를 위해 설립되며, 일반적으로 거주자들에게 회비를 부과하여 공동 시설의 유지 보수 및 운영에 사용된다.

HOA에서는 다양한 역할을 한다. 첫 번째 '시설 및 공동 지역 유지보수'로 공동 시설 및 공공 공간(수영장, 테니스 코트, 운동실 등)의 유지 보수를 책임진다. 두 번째 '규정 및 규제관리'로 주택 소유자들의 거주와 관련된 규정 및 규제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이는 건축 규칙, 정원관리, 주차 정책 등을 포함한다. 셋째 '회비 관리'로 매달 또는 일정한 기간에 회비를 부과하여 공동 시설 유지 보수 및 운영에 사용한다. 이러한 회비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며, 공동체의 운영과 유지에 사용된다. 넷째 '분쟁 조정'으로 이웃 간의 분쟁인 규정 위반에 대한 해결을 돕는다. 이는 주로 이웃 간의 소송을 피하기 위해 조정 및 중재를 통해 이루어진다.

HOA회비의 가격 결정은 주로 HOA의 이사 회나 관리 회사에 의해 결정된다. 이사회는 주택 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비를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고 투표를 한다. 일반적으로 회비는 매년 또는 몇 년마다 조정된다. 이 조정은 주로 공동체의 필요와 예산을 고려하여 이루어

진다. HOA 회비는 주로 각 주택의 크기나 유형,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특히 고층 빌딩의 경우 유지 보수 및 운영에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에 HOA 회비를 안 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회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해 연체료 및 벌금을 부과한다. 둘째, HOA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해 공동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셋째, 만약 주택 소유자가 HOA 회비를 지불하지 않고 계속해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는 소송을 통해 미납 회비를 회수하거나 주택 소유자에 대한 강제 집행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HOA 회비를 제때 납부하고 그에 따른 규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HOA가 적절한 준비금(RESERVED FUND)을 유지하지 않으면, 셀러가 집을 팔 때 바이어가 용자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용자 회사들은 주택 구매자가 HOA 회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HOA의 재정 상태를 검토한다.

만약 이때 HOA가 예상치 못한 유지 보수나 수리 비용이 발생할 경우, 회비가 급격하게 증가해 버린다면 이는 바이어가 부담하기 어려운 추가 비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HOA는 내 집을 꾸준히 유지해주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캐티 라-드림부동산

MD 지어인트
No. 1
에이전트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퀘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사업체·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 / Notary Public

오승환 410.303.0452

Seung Oh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한국농협특판전

KOREA NONGHYUP SPECIAL SALE

APRIL 19TH - MAY 2ND, 2024



Made with carefully selected ingredients that captures the fresh & authentic taste of Korea.



NONGHYUP Korean White Rice
농협 한아름 쌀 22 LB

\$27.99



NONGHYUP Scorched Rice
농협 현미누룽지
BROWN RICE/5.29 OZ

\$2.99



NONGHYUP Scorched Rice
농협 보리누룽지
BARLEY/5.29 OZ

\$2.99



KWANGCHEON NONGHYUP Roasted Seaweed with Green Tea
광천농협 녹차 도시락김
0.14 OZ X 24 EA/BOX

\$8.99



KWANGCHEON NONGHYUP Roasted Green Tea Seaweed
광천농협 돌자반
1.76 OZ

\$1.99



NONGHYUP Peeled & Steamed Chestnut
농협 달콤밤
1.83 OZ X 4 EA/PKG

\$8.99



NONGHYUP Roasted Peanut
농협 볶음땅콩
2.47 OZ X 4 EA/PKG

\$6.99



NONGHYUP Baked & Dried Sweet Potato
농협 군고구마 말랭이
1.76 OZ X 3 EA/PKG

\$6.99



NONGHYUP Puffed Rice Cake Snack
농협 우리쌀 인절미 스낵
4.4 OZ

\$1.79



NONGHYUP Puffed Black Bean Rice Cake Snack
농협 검은콩 인절미 스낵
4.4 OZ

\$1.99

NONGHYUP Plum Drink
농협 생매실 주스
1.5L

\$2.99



NONGHYUP Jeju Mandarin Drink
농협 제주감귤 주스
1.5L

\$2.99



NONGHYUP Pear Drink
농협 배 주스
1.5L

\$2.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반전 또 반전... 'EPL 드라마' 끝까지 간다

맨시티·아스널·리버풀 우승 3파전 가디언 "역대 가장 치열한 레이스" 과르디올라의 맨시티 4연패 도전 '킬러' 손흥민 활약 토트넘전 변수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역대 가장 치열한 우승 레이스'

영국 가디언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시티와 아스널·리버풀 등 '빅3'가 펼치는 선두 경쟁을 이렇게 표현했다.

시즌이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EPL은 선두가 또 바뀌었다. 최근 33라운드 경기에서 맨시티(루턴타운전 5-1승)만 승리하고 아스널(에스턴 빌라전 0-2패)과 리버풀(크리스털 팰리스전 0-1패)이 한 수 아래 팀에 나란히 탈미를 잡으면서 선두권 순위가 크게 요동쳤다.

아스널과 리버풀이 주춤한 틈을 타 3위였던 맨시티(승점 73)가 단숨에 1위로 올라섰다. 맨시티가 선두에 오른 건 지난 2월 24라운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반면 아스널(승점 71·골 득실 +49)은 2위로, 리버풀(승점 71·골 득실 +41)은 3위로 한 계단씩 내려앉았다. 아스널과 리버풀은 32라운드까지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패배가 더 아쉽다. 아스널은 11경기(10승 1



올 시즌 EPL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왼쪽).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미켈 아르테타 아스널 감독(가운데)과 워트킨 클롭 리버풀 감독의 막판 추격을 따돌려야 한다. 맨시티가 우승을 차지하면 EPL 역사상 처음으로 4연패를 달성한다. [EPA·로이터·연합뉴스]

무) 무패, 리버풀은 8경기(6승 2무) 무패를 질주 중이었다. 축구 통계 전문업체 옵타는 엇비슷했던 세 팀의 우승 확률을 재조정했다. 옵타 수퍼컴퓨터의 분석에 따르면 맨시티의 우승 확률은 40.6%에서 70.1%로 커졌다. 대신 아스널은 30.3%에서 18.3%, 리버풀은 29.1%에서 11.7%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어느 팀도 포기하기엔 이르

다. 6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여전히 세 팀 모두 우승 가능성이 있다. 한 경기라도 주춤하면 순위는 곧바로 뒤집힌다. 가디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선두와 2위권의 격차는 겨우 승점 2다. 1971~72시즌 이후 52년 만에 막판까지 세 팀 이상이 우승 경합을 펼칠 수 있다"고 전했다. 옵타 역시 "31라운드 직후만 해도 우승 확률이 리버풀(45%),

맨시티(33.6%), 아스널(21.4%) 순이었다"며 순위 변동 가능성을 열었다.

전문가의 견해도 수퍼컴퓨터와 비슷하다. 맨시티가 유리한 고지를 점한 건 확실하지만, 아스널과 리버풀에도 역전 우승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아스널 레전드 공격수 출신 이안 라이트는 EPL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가 승부처에

서 실수하는 것을 본 적 없다. 우승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잡았다. 아스널과 리버풀은 남은 6경기를 모두 이기고 맨시티가 1경기라도 놓치길 바라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은 새로운 역사에 도전 중이다. 맨시티는 2020~21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리그 3연패를 달성했다. 만약 올 시즌에도 우승해서 4연패를 달성하면 전설의 명장 알렉스 퍼거슨이 이끌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3연패(2회)를 넘어 역대 최장기간 우승 기록을 세운다.

반면 잉글랜드 국가대표 공격수 출신 마이클 오웬은 아스널과 리버풀도 선두 탈환의 기회가 한 번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맨시티가 유리한 건 맞지만, 한 번은 위기가 있다. 바로 37라운드 토트넘전(5월 15일)"이라고 했다. 맨시티는 리그 최강이지만, 유독 토트넘엔 약했다. 최근 10경기 맞대결에서 4승 1무 5패로 열세다. 특히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은 맨시티를 상대로 8골 4도움(16경기)을 몰아친 '맨시티 킬러'다. 미켈 아르테타(스페인) 감독이 이끄는 아스널은 2003~04시즌 이후 20년 만의 우승을 노린다. 올 시즌을 끝으로 물러나는 위트겐 클롭(독일) 감독의 리버풀은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 중이다. **피주영 기자**

“인생은 길고~ 환갑잔치 때 노래 부르는게 꿈”

'우울증을 위한 뉴테라피 2인조 밴드'

KAIST(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에서 동기로 만난 두 청년이 2004년 3월 다소 장난스러운 모토를 내세우며 밴드를 꾸렸다. 재기발랄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음악에 담아 입소문이 났고, 이들이 무대에 서는 날이면 유독 햇빛이 짹짹 '햇살밴드'라는 별칭을 얻었다. 남성 듀오 밴드, 페퍼톤스의 얘기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페퍼톤스 멤버 신재평(43)과 이장원(43)은 "여전히 저희 노래로 기분이 좋아지고, 막연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7일 오후 6시 발매되는 페퍼톤스의 20주년 기념 앨범 '트웬티 플렌티'(Twenty Plenty)엔 총 20곡이 수록됐다. 절반은 페퍼톤스가 작업한

곡, 나머지 절반은 페퍼톤스의 곡을 동료 뮤지션들이 재해석해 부른 곡이다. 곡 '행운을 빌어요'(잔나비), '레디, 셋, 고!'(루씨), '땡큐'(권순관) 등이 리메이크로 새로운 색깔을 입었다. 페퍼톤스는 자신들의 곡을 다른 가수가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를 '오래된 버킷리스트'라고 했다. 이장원은 "20주년을 맞이해 버킷리스트 일부가 이뤄져 마치 깜짝 선물을 받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신재평은 "전작인 정규 6·7집이 가상의 캐릭터를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식이었다면, 이번 앨범의 주제는 페퍼톤스 그 자체"라며 "저희가 작업한 10곡 중 6곡이 10년 넘게 묵혀뒀던 미발표곡들인데, 기를 쓰고 새로운 것을 하려고 했던 데뷔 때의 초심을 가지고 신나게 편곡하고 작업했다"고 설명

했다.

밝고 긍정적인 음악의 가치를 믿으며 음악을 시작했던 이들은 어느덧 40대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음악적 색깔에 대한 고민은 없었을까.

신재평은 "뮤지션은 변덕이 있어야 한다던데, 저희는 꾸준히 신나고 경쾌한 템포와 낙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 듣는 분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고,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기분이 처질 때 저희 노래를 들으면서 기운을 얻는 게 좋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거엔 그저 '힘내라, 파이팅!'만 외쳤다면, 이제는 낙관적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알기에 좀 더 복잡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페퍼톤스의 20주년 기념 앨범 '트웬티 플렌티'. 미발표곡 10곡과 동료 가수들이 리메이크한 기존 발표곡 10곡으로 구성됐다. [사진 안테나]

몇부릴 줄 모르고 오로지 관심사에만 몰두하는 '너드남'('Nerd'+男)이 매력적으로 소비되는 요즘, 페퍼톤스는 대표적인 '너드남'으로 언급된다.

이장원은 "20년 전 KAIST 재학 당시에도 저희는 스스로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녔다"고 말하며 웃었다. 인기의 비결을 묻자 "너드남"이 주목받는 시대에 활동하는 것이 운이 좋기도 했고, 사실 저희는 유지가 잘 되는 팀"이라면서 "유지에 집중했던 것이 중요했다"고 답했다.

남은 버킷리스트에 대해 신재평은 "환갑 잔치에 저희 대표곡 '뉴 히피 제너레이션'을 부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인생은 길고 날씨가 좋아서~"라는 가사를 할아버지가 돼서 부르면 기분이 좀 괜찮을 것 같다"면서다. 페퍼톤스는 음악 여정을 녹인 만화책을 발간하고, 6월엔 단독 공연을 여는 등 20주년 기념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여환희 기자

REALTY MARYLAND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추천 투데이 리스팅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COMING SOON Bowie 싱글홈	COMING SOON Columbia 싱글홈	Millersville \$559,000 싱글홈, 방3, 화4, 차고2	COMING SOON Perry Hall 싱글홈, 방3, 화2.5	UNDER CONTRACT Ellicott City \$689,000 싱글홈, 랜치 스타일 좋은 학교, 0.75 에이커
Cockeysville \$1.3Million 싱글홈, 방6, 화4.5, 차고3 Finished Basement	UNDER CONTRACT Columbia 싱글홈, 방4, 화2	UNDER CONTRACT Millersville 싱글홈, 방4, 화4, 차고	Rockville 싱글홈, 방4, 화2	Cooksville \$449,000 싱글홈, 방4, 화2.5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COMING SOON Elkridge 월 \$2,800 타운홈 방4, 화3, 차고1	Hanover 월 \$3,100 타운홈 방3, 화2.2, 차고2, 전채마루	Germantown 월 \$2,400 타운홈 방3, 화4	Glen Burnie 월 \$1,750 타운홈 방2, 화1	COMING SOON Hanover 월 \$3,000 타운홈 방3, 화3, 차고2	Odenton 월 \$2,500 타운홈 방3, 화3, 차고
---	--	--	---	--	---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Steve: So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스티브: 그레 이번 주말에 뭐할 거니?

Matt: Not too much. My wife wants me to paint.
맷: 별 거 없어. 아내가 페인트 칠을 해줬으면 해.

Steve: The whole house?

스티브: 집 전체를 다?

Matt: No. Just touch up a few places like around the light switches.

맷: 아니. 전기 스위치 주변 같은 데 몇 곳 칠하는 정도야.

Steve: I think I'm going to catch a movie.
스티브: 난 영화 보러 갈까봐.

Matt: Oh? Which one?

맷: 그래? 무슨 영화?

Steve: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스티브: 아직 안 정했어.

Matt: Well, give me a ring. Jane and I haven't been to a movie in a long time.

맷: 그럼 나한테 전화해 줘. 제인이랑 나도 영화 안 본 지 오래 됐거든.

touch up a room: 방을 조금 페인트 칠하다

Steve is talking to his friend Matt.
(스티브가 친구맷과 얘기를 나누다.)

Steve: Okay. I'll look in the newspaper and call you later with some choices.

스티브: 알았어. 신문 찾아보고 볼 만한 영화 골라서 나중에 전화할게.

Matt: Sounds good. I'll talk to you later.

맷: 좋아. 나중에 통화하자.

기억할만한 표현

▶ catch a movie: 영화를 보러 가다.

"Let's catch a movie this weekend. What do you say?"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 어때?)

▶ make up (one's mind): 마음을 정하다. 결심하다.

"She has to make up her mind which college she wants to go to."

(그녀는 어느 대학을 갈 건지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 give (one) a ring: (누구에게) 전화하다.

"If you want to play golf on Sunday give me a ring."

(일요일에 골프 치고 싶으면 전화 줘.)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가로열쇠

(1)물질하는 해녀가 바다 위에 떠올라 잠던 숨을 휘파람같이 내쉬는 소리 (4)일 년 내내 볼바람. 누구에게나 늘 좋은 낫으로 대하는 사람. □시□□ (7)운하·하천·항내에서 사용하는, 밑바닥이 편평한 화물 운반선 (8)흙런 (9)야구에서, 2루타 이상의 안타 (11)깎아 낼수록 커지는 것은?(수수께끼) (12)몹시 빠르게 부는 바람과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물결 (14)발바닥이 넓기 때문에 모래땅을 걸어 다니기에 알맞다. 오랜 시간 물 없이도 견딜 수 있어 3일간 마시지 않아도 별 지장이 없다 (15)산에 오름 (17)도회에서 멀리 떨어져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변두리 (20)봉급을 정한 날짜 전에 지불함 (21)직무를 맡겨서 사람을 씬. ↔해임 (23)넓적다리의 위쪽 부분 살이 깊은 곳. 국 쏘고 ~ 텐다(재앙이 연이어 일어남) (25)가을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날. 24절기의 하나. 9월 23일경 (26)수중에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음. 주모는 우리가 셀 낚도 없는 ~이라는 걸 알면 아마 박대를 할 것이다. □□푼□ (27)고대 중국에서, 거북의 등딱지나 짐승의 뼈에 새긴 상형 문자

세로열쇠

(1)숨은 사람을 찾아내는 아이들 놀이 (2)두부를 만들고 난 찌꺼기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 그 자체로도 훌륭한 영양 덩어리다 (3)장식용으로 쓰는 너비가 조붓하고 긴 끈 모양으로 된 것 (4)두 다리의 사이. 살. ~에 방울 소리가 나도록(속담:아주 급하게 뛰어가는 모습) (5)짜장면에 들어가는 중국식 된장 (6)바람이 치고 물결이 침. 일정한 주어나 주장 없이 그저 대세에 따라 행동함. □□남□ (10)격하게 노함 (13)가을의 금강산. 일만이천봉이 단풍으로 곱게 물들 조 (14)명주나 나일론 따위의 넓은 천에 여러 개의 줄이 달려 있고, 땅에 내릴 때는 반구형의 우산 모양으로 펼쳐지조 (15)산에 오르기도 하고 물에 가기도 함. 명산대천의 명승지를 유람함. □산□□ (16)명성이나 명예가 헛되이 퍼진 것이 아님. 이름날 만한 까닭이 있음. 명□□□ (18)간장, 된장, 고추장의 원료. 콩을 삶아 덩이를 지어서 말리조 (19)조직체에서 철저한 충성을 바치는 사람. □수□□ (22)해야 할 일. 불일. 용건. 여기 온 ~가 뭐가? (24)신분증, 돈이 들어 있조 (25)더럽고 좋지 못한 소문

스도쿠

	1			4	3		7	8
2			5		7	6		
		7	1		8	2		3
	8	6			9			7
						8	6	
1		2				4	5	
9	4	1		8				
			9			1	8	2
	2	5		7	1	9		6



자료제공 = 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9	4	6	1	2	3	5	7	8
2	8	1	4	5	6	3	9	7
5	3	7	2	8	9	1	4	6
6	5	4	9	3	8	2	7	1
1	9	8	5	2	7	4	6	3
7	2	3	6	1	4	9	8	5
3	6	2	8	9	1	7	5	4
4	1	9	7	6	5	8	3	2
8	7	5	3	4	2	6	1	9

①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카드 유효 3자리 EXP. DATE: / month year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교통사고
- 직장사고
-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 **경제적인 보험!**
-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욕설**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1 새로운 크레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

4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LÓ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4월 18일 목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마케팅>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
-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 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문: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애난데일 회계사우수
-풀타임가능하신분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분
-무경험자도 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급휴가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콧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유재신 공인회계사(Annandale, VA)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employehire13@gmail.com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문의: 571-348-3723

WUV대학교 입학처 (이중언어)
풀타임 or 파트타임
이력서제출: hr@wuv.edu

식당 장비 세일즈 하일 분 모집
DC, MD와 북버지니아 지역 식당장비
세일즈 하일분. 경력자 우대.
각종 지원 프로그램 과 수당.
문의: 571-332-2101(문자) 또는
edk_tre@gmail.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 및 유/무 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
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제품 및 서플라이 오더.
(초보자 가능, 최소의 이중언어 및
기본 컴퓨터 요함) -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크 임)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 경험필수
-1년 이상 회계업무 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dmin Assistant: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Full Time 행정직원 구함
-안정적인 Position 원하시는 분
-Detail에 강하고 좋은 인성 (must)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Cash Bonus 포함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 관리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 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분
luvacct1986@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걸려서 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co.kr
josephleejtbc@gmail.com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풀타임
유경력 어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ntru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1) 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2) 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240-477-5683

닥터 오피스 프론트 일하실 성실하신 분
구합니다. resume 보내 주세요
slim@gastrohealth.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 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식당/제과/델리/식품>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 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직이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 (취업기회)
영주권 스폰서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시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력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드립니다)
571-365-8303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직원모집
*College Park Area, MD
-Shift Manager 교대근무관리자
사무실 관리자/정육부 관리자/ POS 지원/
Pricing Analyst/ Lead Cashier
*Capitol Heights Area, MD
-사무보조: 이중언어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 301-333-2209

베이글샵에서 일하실분. 파/풀타임 (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 물에서 5분거리
Text: 703-371-1263, 703-899-5098

볼티모어 지역에서 초보자 사시 & fried
chicken / 파타임 & 풀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애난데일 치맥에서 서버, 캐시어 구합니다.
파트타임, 캐시어
571-352-4938/Chimc.va@gmail.com

스프링필드 베이글샵에서 빵구우실분 구함.
파/풀타임 월-토, 스프링필드에서 5분거리
703-371-1263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Full/Part-time Server 구합니다.
703-341-7912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베트남 식당.
주 2일 일하실 서버구함. 초보자도 환영.
240-678-5395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301-926-3638 / 301-538-4246

페이셜/바디 마사지가 같이 하실 분
파트타임(2일), 라이센스 필수
일당 \$280 + 팁(\$70-\$120)
맥클린 소재 한의원
703-839-0766 (문자 요망)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바버 or 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풀타임/파트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풀/파트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4일 또는 2일 일 하실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세탁/얼터레이션>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리지 지역
571-455-3609

스테포드 지역 픽업 수선&캐시어
Tel. 703-628-9100

픽업 바느질 하실 분(파트타임) / 엘리콧시티
410-926-3200

픽업 스토어 카운터, 얼터레이션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스테포드-루트원 선상
703-501-3335

카운터 보면서 바느질 하실 분
파트타임/풀타임, 엘리콧시티.
410-750-048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스틀에서
파트타임 하실 분
연락처: 703-300-4959

<정비/바디샵>

게이터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생활안내 703-281-9660(문자)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출광으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임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한미 홈헬스

(Hanmi Homehealth)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Please send Resume to
KDLHJL@gmail.com

대형 슈퍼마켓 능력있는 매니저를 모십니다

- 정육부 1명/ 그로서리 1명
- 경험과 능력에 따른 우대
- 은퇴연금/의료보험 제공
- 주말근무 가능하신 분
- 내셔널하버 MGM 근처

(495 벨트웨이 EXIT 4A, 애난데일 10분 거리)

이력서: jumbo.food@gmail.com
전화: 703-577-2425 Mr. 박

Jumbo International Supermarket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렌트 수입 좋은 콘도 4채 매매

-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200/m
- 매매가: \$599,000 (Cash Only)

문의

AGENT 환영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8일 목요일 중앙일보

자동차 메카닉 구함(애난데일)
571-243-9899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자동차정비소 메카닉 일하실분 폴스처지
703-577-5866

첸틀리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모집
메카닉, 준메카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카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
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HD Plus Construction
밀웍상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젝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터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 구인/구직>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 (지휘 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센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ccdc.edu
www.ccdc.edu

락빌에 위치한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집합니다
-자격: 성악전공 / 지휘전공 / 음악전공(지
휘경력)
-제출서류: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
기소개서
-제출할 곳: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16개월된 아기 돌보실분. 예쉬번지역.
일주일 3일 또는 2일
571-438-1402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연락처: 443-621-2625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문의: 703-850-1100/703-963-1234

필그림유치원에서 토틀러반
오후 파트타임 선생님 구합니다.
571-212-9020

애난데일 인쇄회사 풀 / 파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고객마케팅관리 하실분.
신분부. 재택 NO
E-mail: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합니다.
-최적의 위치 · 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 하실분
703-798-7270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연락: 240-903-0777

피아노 주일예배(11시) 반주봉사할 분
웨어팩스 코스트코 근처 브래더로드.
202-271-2726

버크 태권도 사범/보조사범 (파/폴타임),
방과후 선생님 구합니다
571-243-7027 (문자)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베이비씨터구함 Vienna, 주5일, 1-6pm,
아기 픽업가능한분, 성실한분
213- 839-3735

밤10시부터 청소 하실분들.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버지니아 센터빌
410-825-7941

Fairfax 입주 간병인 구함
87세 여성 모실분. 요리, 목욕, 밤간병인
응급상황시 투입, 운동, 마사지
6일 근무, 낮시간: \$5000 cash 매달
703-568-8024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세일즈(Marketer) 직원,
한국어/영어 가능자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4115 Annandale Road, suite 105
Annandale, VA 22003

**부동산
렌트**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방, 전체 리모델한 저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 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아난데일 홈디포 옆 위치.
넓고 밝은 3 level 타운홈, 방3, 화2+2.5
전체마루, 맥, walkout, 5월 초 입주
703-725-7871

센터빌 타운하우스 렌트 (월 \$2,795)
Hmart 근처, 분리된 워아웃 베이스먼트 (화
장실 포함). 전체3층, 방4+ 화장실 3.5.
▶703-244-3453

콜롬비아 싱글홈 월\$3,800
방5, 화4, 차고, 2 리버힐 학교
410-599-1800 문자요망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잔디 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연락처 :301-385-3535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은)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센터빌 타운홈 H마트 앞, 월 \$3,400
방3, 화3, 차고2, 마루. 바로 입주가능
703-401-9997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카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 전체 렌트. 즉시 입주 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교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 4 화 3. 소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콘도 렌트>
Manassas 콘도 \$1,600 / 즉시 입주 가능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
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
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
집. 8800s.f.(넓은 size) Costco 가까운 동네
▶703-477-3114

Alexandria 다운타운 근처, Amenities 좋음.
▶703-477-3114

페어팩스 웨그맘 걸어서 5분. \$1,150
개인방, 화장실, 보안보장, 빛 잘 들어오는
703-762-6759

<방 렌트>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방 렌트, 홈디포 뒤, 주차장 넉넉함,
출입문 따로.
571-237-3411

MD 실버스프링 (Calverton 교통 편리)
싱글홈, 큰방, 욕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연락처: 301-648-2422

애난데일 메시아장로교회 뒤편 타운하우스
지하실 방 하나 렌트. 목욕탕, 화장실
703-887-5173

센터빌 CVS 근처, 지하 전체 렌트(거실, 화장
실, 방, 키친, 냉장고), 간단식사, 출입문 별도
유포 \$1,300
571-243-7027 (문자)

애난데일 방1개, 부엌, 리빙룸, 샤워
유포, 인터넷, 세탁기(\$1,300)
703-618-6634

MD Silver Spring 한아름 10분거리
조용한 단독주택 2층. 넓은 마스터 베드룸
쓰실분. 가구완비, 인터넷, 간단한 취사

240-543-6427

애난데일 한강근처 타운홈 방세놓음
전화: 571-699-9707

페어팩스 VA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아주 가까운 곳. 직장인 환영
703-419-0337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방1 \$600 방2 \$1000, 여자분 환영
703-678-7833(문자 바람)

Fairfax/Burke NOVA, GMU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환영
571-214-0188(문자 바람)

단독주택 2층방/인터넷/가구완비/냉장고
별도/ 주차/샤워별도, 남자분 / 금연자
29번과 198번 사이 메릴랜드 버트스빌
240-413-2738

MD 렌함지역 조용하며 교통편리
직장인을 위한. 즉시 입주 가능함.
방세 저렴, 큰방1, 작은방1
301-379-9660

애난데일 노바대학 근처 방 렌트 (방1개)
깨끗하고 조용한 고급스러운 집
학생, 여자분 환영.
703-336-3283

노스 포토맥, NIST 근처 싱글홈 반 지하
출입문 별도, 넓은 거실, 부엌, 화장실,
빨래방, 직장여성구함, 인터넷포함
301-520-2916

센터빌 H-마트, 하이스쿨 각 5분 거리
방 세놓음, 여자분 환영.
703-507-1180(문자 요망)

애난데일 방 1, 샤워실, 출입문, 간단취사
주차 편리, 즉시 입주, 금연자
571-243-6295

DC 출퇴근 매우용이. 395 exit 근처
집앞에 펜타곤 가는 무료버스 10분 간격.
가구 가전 완비. 여성분·금연자 환영
240-477-3232

싱글홈 1층 출입문 별도, 방2, 큰거실,
큰부엌, 화장실
571-525-4220(mr. 권)

애난데일 한공간에 방, 욕실, 키친이 꾸며져
있고 침대, 책상, 냉장고, 전자렌지 구비
571-232-6052

저먼타운 MD 콘도, 큰방1, 욕실별도.
금연자, 그랜마트 6분 롯데 11분, 오래게실분
702-622-8853

MD 렌함지역. 조용·교통편리, 직장인 원함.
즉시 입주 가능. 방세저렴, 큰방1, 작은방1
301-379-9660

애난데일 H-mart 뒤 콘도. 화장실 딸린 큰방
703-300-8669

방 하나 렌트. 주차장 충분, 출입문 따로.
571-237-3411

Fairfax GMU 근처 Townhouse 에 방 렌트
욕실 가구완비 \$800 여 학생 직장인
703- 981-7615 (문자)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이달재 부동산

703-483-0505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싱글홈 (단층 구조) 추천
\$495,000

1층(방3)과 반지하(방1, 화1)에 각각 방,
화장실 보유
I-66 Highway에 근접, 교통 편리한 지역
병원, 사핑몰, 그로서리 등 근린생활 용이

1층 콘도 (시니어 생활 편리)
\$350,000

방2, 화2, 1,200 스퀘어,
여유로운 주차 환경,
저렴한 콘도피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Junk82828282.com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주방,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벽,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NEST ENERGY SERVICE, LLC

-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티 허가, 인스펙션 도와드림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림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전기 공사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 백금 (Platinum)
- ◆ K14, K18, Setting 전문
-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용자

맞춤 용자의 길인
마이클 장
꿈과 열정에 의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 주책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팀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텍,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 페인트
◆ 목수 ◆ 전기 ◆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광고 문의 :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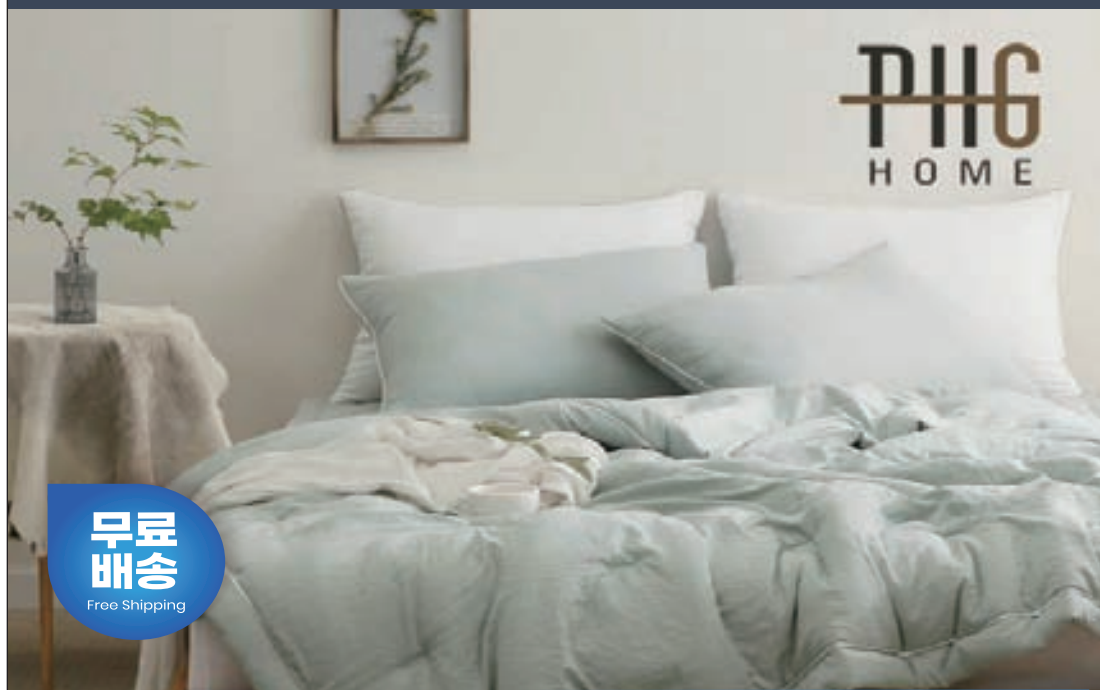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봄맞이 핫딜 세일

매달 찾아오는 핫딜의 톡큰 세일혜택! 이번 달에도 아낌없이 받아주세요~

H O T D E A L S U P E R S A L E



무료 배송
Free Shipping



XXIO NEW 2024 다이아윈스 골프공 [6구 증정]

새로운 **BiFLEX FACE**와 진화된 **New Active Wing**
젝시오13 남성/여성용 **아이언세트**

5pcs \$1099.99 (6,7,8,9,PW) **7pcs \$1539.93** (5,6,7,8,9,PW,SW)

무료 배송
Free Shipping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AK백화점에 입점된 박흥근 홈패션

45년 고품격 디자이너 침구브랜드 & 신개념 에어워싱 기술
박흥근 PHG홈 **한국산 봄 에어워싱 차렵이불**

퀵사이즈 차렵이불 Blue, Pink, Mint ~~\$130~~ **\$99**



무료 배송
Free Shipping

100% 천연 유기농 CBD, 안전한 힐링CBD (THC 0.03%함유)

만성통증, 염증, 불면증에 효능, 암 증상 및 우울증, 뇌전증 개선
풀 스펙트럼 **유기농 CBD 통증크림**

CBD1000mg \$59.95 **CBD2000mg \$79.95**



무료 배송
Free Shipping

태국의 인삼 흑생강! 자색 생강, 파비플로라, Black ginger

72시간 국내산 저온액 추출공법으로 생산한 그라차이담 마일드
그라차이담/흑생강 파우치 70ml x 30packs

핫딜 출시 이벤트 특별세일 ~~\$119.99~~ **\$99.99**



무료 배송
Free Shipping

DIY KIT 2박스 쌀누룩 고추장을 손쉽게 만들어 보세요!

인공조미료나 첨가물없이 우리 가족 먹을 고추장을 직접 제조
다산명가 **쌀누룩고추장 DIY Kit**

물붓고 섞으면 끝! 100% 한국산 원료 ~~\$49.90~~ **\$34.50**



이벤트 2개 사면 \$40

BEST 토너패드

무료 배송
Free Shipping

2개구매시 \$40 저자극 콜라겐을 짹 짹 담아 탱탱하게!

압도적 1위 토너패드! 탄력케어 주름개선 데일리 케어
메디힐 콜라겐 채움 패드 100매

1개 \$22 **2개 \$40**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A. 애틀랜타 기타 지역

매매 구인 구인

뷰티서플라이
 텍사스 달라스 백화점 물내
 가\$25만, 주인직접매매
 4,700sf, 렌트\$7,000(UT포함)
 (254)652-1867
 beautyworlddenton.com

일본식당 구인
 *데빵 셰프 0명
 *스시 셰프 0명
 유경험자
 침식제공(결여서 출퇴근 거래
 알라바마 관광지역)
 (251)968-2525
 (256)653-1970

한식당
 경험자 우대
 숙소제공 가능
 연봉 협의후 결정
 오레곤주 포틀랜드
 (971)451-9022

성실하신분
 컨비니언스토어
 *루이지애나주
 (504)430-8426
 (504)373-2163

수선 기술자 급구
 Speed Alteration
 일감중부, 연인컴10~12만
 부부팀 환영, 숙박가능
 배우면서 일할수도 있음
 4551 Office Park Dr, Jackson, MS 39206
(213)507-0387

HotDeal.KoreaDaily.com
 미주 한인 사회 최저가
온라인쇼핑몰
HOT DEAL
 문의 **213.368.2611**

ASK미국 무료상담
 ask.koreadaily.com ASK미국 THE KOREA DAILY
 전문지식부터 미국생활까지
온라인 상담합니다!

ASK미국에서 유능한 전문가를 모십니다!
 전문가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askusa@koreadaily.com로 메일 주세요.

꿈을 위한 도약
 중앙안내광고가 함께 합니다.
(213)368-252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505 - 7703

YONSEI UNIVERSITY GLOBAL MBA 2024 ADMISSIONS
 Application Period MARCH 7 - APRIL 18
 Application SUBMIT ONLINE
 Tel. +82-2-2123-3254 | Email. gmba.admissions.ysb@yonsei.ac.kr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210-9720, papaaaa.com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항흥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터치로 살인 Up to 40% 할인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췌장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한의학박사 서영수원장입니다. 인명정부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품 야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5500 → \$1700
 지금이곳만 모든통증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상삼음유관 도안역사관 50% 특별할인가
 Tel. 213.33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담임목사님 청빙공고 알래스카 앵커리지(Alaska Anchorage)에 위치한 알래스카 한인장로교회(Alaska Korean CRC)에서는 다음과 같이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1. 청빙 조건:
 - CRC 교단이 인정하는 개혁주의 신학교(장로교단)를 졸업 후 CRC 교단 소속이시거나 CRC 교단 가입이 가능한 분으로서 목사 안수 후 미국에서 담임목사 사역과 부목사 사역으로 5년 이상의 목회사역의 경험이 있으신 분
 - 성경적 신앙인품과 리더십을 가지신 50대 전후이신 분
 - 현재 미국 거주 중이며 취업에 걸려사유가 없는 분

2. 제출 서류:
 - 한글 이력서 (가족사항/본인사진과 가족사진)
 - 자기 소개서 (성장 배경/신앙고백/목회경험/목회비전 간단명료하게)
 -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졸업증명서
 - 목사 추천서 2부 (추천자의 연락처 명시: 전화번호, e-mail) (추천자가 추천서를 직접 본 교회로 송부)
 - 소속된 교단에서 발행한 안수증명서
 - 6개월 이내의 설교 영상 1편(온라인 링크 및 설교원고 포함)
 ▶ 첨부 파일(서류들)은 모두 PDF파일 양식으로 보내 주십시오

3. 추가 사항:
 - 제출된 서류 : 제출된 서류들은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마감일 : 2024년 4월 30일
 - 보내실 주소 : sungkwankim0105@yahoo.com kwanghwangak@gmail.com

참고 - 서류 심사로 선정된 분들에게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 방문 설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모님께서 피아노 반주를 하실 수 있는지를 알려 주십시오.

주소 알래스카한인장로교회(Alaska Korean CRC)
 709 W. International Airport Rd, Anchorage, AK, 99518

전화 (907) 632 - 3579, (907) 947 - 5645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미주 동시어??!!**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독점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 주택

Annandale \$884,900

방4, 화장실 4, 편리한 렘블러 스타일



Contract

독점

Alexandria 킹타운 콘도

방2, 화장실1

\$329,900



독점

Springfield 콘도

방2, 화장실2

\$317,000



독점

리모델한 예쁜 타운하우스

Fairfax \$735,000

Costco 동네



SOLD

독점

새로 리모델한 콘도

Annandale \$209,900

새 마루, 새 페인트, 업데이트된 부엌과 화장실



SOLD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